


수탁사업 2006-

미래의 직업세계 인프라 구축 석·박사 재학생 조사

진미석 김나라 윤형한

 **KRIV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머 리 말

고급인적자원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석·박사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와 본원이 2004년부터 격년으로 석·박사 재학생 조사사업을 시행해 왔다. 석·박사 재학생 조사사업의 결과는 '대학원 세계' 책자의 중요한 정보 콘텐츠로 활용되고, 또한 석·박사 교육과정의 수요를 판단하고 석·박사 교육과정의 기능과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준다. 국내에서 석박사급 고급인력의 양성과 활용에 대한 관심이 미약해서 이 부문의 조사와 연구가 매우 빈약한 상황에서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이 분야의 연구를 촉진시켜 줄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사업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6년 '미래의 직업세계 인프라 구축'(수탁사업 2006-7-3번)으로 진행되었으며, 진미석 박사가 책임자로서 김나라, 윤형환과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제한된 인력과 예산의 한계 내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은 연구진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자료 수집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전국 41개 대학 취업정보센터 관련자 및 861개 학과 조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이다. 그리고 조사사업을 위해 물적, 행정적, 심리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국 김정기 국장님, 장금영 산학협력과 과장님, 한경문 연구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열과 성으로 지원한 임영빈 위촉연구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06년 12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이 원 덕

목 차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표집방법과 절차 · 2

제3절 조사도구 · 6

제2장 석사과정 재학생의 교육·직업에 대한 조사 결과

제1절 석사과정 입학까지의 진로경로 · 11

제2절 석사과정 교육에 대한 견해 · 21

제3절 석사학위 취득 이후의 진로 계획 · 34

제4절 취업 전망 · 43

제5절 소결 · 45

제3장 박사과정 재학생의 교육·직업에 대한 조사 결과

제1절 박사과정 입학까지의 진로경로 · 49

제2절 박사과정 교육에 대한 견해 · 56

ii 목차

제3절 박사학위 취득 이후의 진로 계획 · 68

제4절 취업 전망 · 78

제5절 소결 · 81

제4장 결론: 요약 및 제언

제1절 요약 · 83

제2절 제언 · 86

<부록 1> 조사도구: 석사과정 재학생용 대학원 교육 · 직업에 관한 조사 · 91

<부록 2> 조사도구: 박사과정 재학생용 대학원 교육 · 직업에 관한 조사 · 101

참고문헌 · 113

<표목차>

- <표 I-1> 표집 절차 · 3
- <표 I-2> 조사학과 선정 · 4
- <표 I-3> 학과별 표집 결과 및 회수 현황 · 5
- <표 I-4> 대계열별 모집단 및 회수 현황 · 6
- <표 I-5> 조사내용 · 7
- <표 I-6> 석사과정 재학생의 응답자 특성 · 8
- <표 I-7> 박사과정 재학생의 응답자 특성 · 9

- <표 II-1> 석사과정 진학동기 · 12
- <표 II-2> 석사과정 진학동기에 대한 성별, 계열별, 지역별 평균 비교 · 14
- <표 II-3> 석사과정 진학 당시 취업 상태 · 17
- <표 II-4> 석사과정 진학 당시 취업 상황 · 18
- <표 II-5> 석사과정 진학에 필요한 정보 획득 경로 · 19
- <표 II-6> 석사과정을 위한 유학고려 여부 · 20
- <표 II-7> 국내에서 석사과정을 결정하게 된 주된 이유 · 20
- <표 II-8> 석사과정 교육과정 만족도(세부) · 22
- <표 II-9> 전공계열별, 지역별 석사과정 교육과정 만족도 · 22
- <표 II-10> 석사재학생들의 대학원 교육과정개선을 위한 요구분석 · 23
- <표 II-11> 전공계열별 학비조달방법 1순위 · 26
- <표 II-12> 지역별 학비조달방법 1순위 · 26
- <표 II-13> 장학금 수혜 여부 · 27
- <표 II-14> 계열별 · 지역별 장학금 수혜 여부 · 27
- <표 II-15> 장학금 수혜 기관 · 28
- <표 II-16> 프로젝트 참여 상황 · 28
- <표 II-17> 연구 프로젝트 참여 개수 · 29

- <표 II-18> 연구 프로젝트 참여 수당 · 30
- <표 II-19> 연구 프로젝트 참여 자격 · 30
- <표 II-20> 프로젝트 참여 만족도 · 31
- <표 II-21> 만족 이유 · 31
- <표 II-22> 불만족 이유 · 32
- <표 II-23> 외국인 유학생과 수학한 경험 여부 · 33
- <표 II-24>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 대학원 석사과정에 미치는 영향 · 33
- <표 II-25>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국내에서 유학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 · 34
- <표 II-26> 석사학위 취득 후 진로계획 · 35
- <표 II-27> 진로계획 방향 · 35
- <표 II-28> 희망직업(상위 10개) · 37
- <표 II-29> 희망직업과 전공과의 관련성 · 37
- <표 II-30> 전공계열별, 지역별 희망직업과 전공과의 관련성 · 38
- <표 II-31> 희망 연봉 · 38
- <표 II-32> 계열별, 직업별 희망 연봉 · 39
- <표 II-33> 희망하는 직장의 형태 · 39
- <표 II-34> 석사학위 취득 이후 해외 취업 계획 · 40
- <표 II-35> 취업하고 싶은 국가 · 40
- <표 II-36> 전공계열별, 지역별 해외 취업을 하고자 하는 가장 주된 이유 · 41
- <표 II-37> 박사과정 진학 계획 · 42
- <표 II-38> 희망하는 박사과정 진학기관 · 42
- <표 II-39> 3년 이내 정규직 취업가능성 기대정도 · 43
- <표 II-40> 계열별, 지역별 3년 이내 정규직 취업가능성 기대정도 · 43
- <표 II-41> 자신 전공의 산업체 수요 예상 정도 · 44
- <표 II-42> 전공계열별, 지역별 자신 전공의 산업체 수요 예상 정도 · 44
- <표 II-43> 자신의 전공분야의 5년 후 취업 전망 · 45

- <표 III-1> 박사과정 진학 동기 · 50

- <표 III-2> 성별, 전공계열별, 지역별 박사과정 진학 동기 · 51
- <표 III-3> 박사과정 진학시 전공 변경 여부 · 51
- <표 III-4> 박사과정 진학당시 취업 여부 · 53
- <표 III-5> 담당했던 직무와 박사 전공과의 관련성 · 53
- <표 III-6> 박사과정 진학에 필요한 정보 획득 경로 · 54
- <표 III-7> 박사 진학을 위해 외국 유학 고려 여부 · 54
- <표 III-8> 유학 희망 국가 · 55
- <표 III-9> 국내 대학원 박사과정을 결정하게 된 이유 · 55
- <표 III-10> 대학원 박사과정 교육만족도(세부사항별) · 57
- <표 III-11> 박사과정 교육과정 만족도 · 58
- <표 III-12> 박사 재학생 건의사항 · 59
- <표 III-13> 전공 계열별 · 지역별 경비조달 방법 · 62
- <표 III-14> 장학금 수혜 여부 · 62
- <표 III-15> 계열별 장학금 수혜여부 · 63
- <표 III-16> 장학금 종류 · 63
- <표 III-17> 프로젝트 참여 상황 · 64
- <표 III-18> 연구 프로젝트 참여 개수 · 64
- <표 III-19> 연구 프로젝트 참여 수당 · 65
- <표 III-20> 연구 프로젝트 참여 자격 · 65
- <표 III-21> 연구 프로젝트 참여 만족도 · 66
- <표 III-22> 불만족 이유 · 67
- <표 III-23> 학위 취득 이후 진로에 대한 계획 · 69
- <표 III-24> 진로계획 방향 · 69
- <표 III-25> 희망 업무 · 70
- <표 III-26> 취업 희망 기관 유형(계열별, 지역별, 전체) · 71
- <표 III-27> 희망 직무와 전공과의 관련성 · 72
- <표 III-28> 희망 연봉 · 72
- <표 III-29> 전공계열별, 지역별 희망 연봉 · 73
- <표 III-30> 박사학위 취득 이후 해외 취업 계획 여부 · 73

- <표 III-31> 해외 취업하고자 하는 가장 주된 이유 · 74
- <표 III-32> 포스닥 과정 계획 여부(계열별, 지역별, 전체) · 75
- <표 III-33> 포스트 닥 과정 희망 기관 · 75
- <표 III-34> 외국에서 포스트 닥 과정을 하고 싶은 이유 · 76
- <표 III-35> 해외에서의 포스트 닥 종료 이후 그 국가에서의 취업 계획 여부 · 77
- <표 III-36> 3년 이내 박사 정규직 취업가능성 기대정도 · 78
- <표 III-37> 자신 전공의 산업체 수요 예상 정도 · 79
- <표 III-38> 전공계열별, 지역별 자신 전공의 산업체 수요 예상 정도 · 80
- <표 III-39> 자신의 전공분야의 5년 후 취업 전망 · 80
- <표 III-40> 전공계열별, 지역별 자신의 전공분야의 5년 후 취업 전망 · 81

[그림목차]

- [그림 II-1] 석사과정 진학 동기 · 12
- [그림 II-2] 석사과정 전공변경 여부(전체) · 15
- [그림 II-3] 계열별 석사과정 전공변경 여부 · 15
- [그림 II-4] 석사학위 전공변경 이유 · 16
- [그림 II-5] 석사과정 중의 취업 여부 · 17
- [그림 II-6] 석사과정 중의 취업 실태 · 18
- [그림 II-7] 석사과정 생활만족도(전체) · 21
- [그림 II-8] 대학원 경비 조달방법(1순위) · 25
- [그림 II-9] 희망 업종 · 36

- [그림 III-1] 박사과정 진학 동기 · 50
- [그림 III-2] 박사과정 중 전공변경 계열별 비교 · 52
- [그림 III-3] 현재 전공으로 바꾼 가장 주된 이유 · 52
- [그림 III-4] 박사과정 생활 만족도 · 56
- [그림 III-5] 경비 조달 방법(1순위) · 61
- [그림 III-6] 계열별 박사 정규직 취업가능성 기대정도 · 79

【요약】

1. 조사의 개요

- 이 조사는 일반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전공분야별 교육적·직업적 경험과 대학원에서의 생활, 그리고 학위 취득 이후의 희망직업 및 진로계획 등을 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 고급인적자원의 양성과정의 특성을 이해하고 인력 수급 및 직업교육 정책의 기초자료를 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본 조사는 우리나라의 일반대학원 석·박사과정에 재학하는 2,676명(석사과정 재학생 1,746명, 박사과정 재학생 93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는 각 대학의 취업정보센터와 연계하여 실시하였음. 표집방법은 2단계 유층표집으로 5대 권역에서 41개 대학을 선정하고 29개 전공에서 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 방법은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한국직업능력개발에서 각 대학 학과로 설문지를 발송하고, 각 학과에서는 석·박사과정 재학생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학과에서 조사결과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 회송하는 절차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음.
- 조사내용은 ①석·박사과정 입학까지의 진로경로, ② 석·박사과정 교육에 대한 견해, ③ 석·박사 취득 이후의 진로계획, ④ 취업 전망의 4가지 측면에서 석사과정·박사과정 재학생들의 인식을 분석하였음.

2. 주요 연구 결과

가. 진로 경로

- 석사과정 재학생들은 석사학위가 취업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당시 직장에서 더 나은 업무 수행을 위해서 진학하였다는 동기가 강하게 나타남. 곧, 취업지향적 동기가 강한 것으로 나타남. 박사과정 재학생들은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 교수가 되기 위해서 순으로 나타나 연구 개발 및 교육전문가를 위한 준비과정으로 진학하는 동기가 두드러짐.
- 석사과정 학생들은 석사과정 진학에 필요한 정보를 선배나 동료로부터 얻었다는 학생들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학사과정의 지도교수로부터 얻었다는 학생이 많았으며 박사과정 학생들은 박사과정 진학에 필요한 정보를 석사과정의 지도교수로부터 얻었다는 학생들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선배나 동료로 나타나 석사과정 재학생들과 박사과정 재학생들 간에 조금 다른 현상을 보였음. 그러나 대학의 진로지도 관련 기관에서 진학정보를 얻었다는 학생은 석사과정 재학생, 박사과정 재학생 공히 극소수에 불과함. 석박사과정생들의 진로가 보다 다양해짐을 고려할 때, 대학당국에서는 석박사 학생들을 위한 진로지도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재학생들의 학교의 진로지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점을 이와 같은 결론을 뒷받침해 주고 있음.

나. 대학원 교육에 대한 견해

- 석사과정 재학생들은 석사과정 생활에 대해 80%정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세부적으로 교수님의 연구나 논문지도, 교수님 강의, 교육과정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졸업 후 취업이나 진학 관련 진로정보 및 상담 제공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다. 학위 취득 이후의 진로 계획

- 석사과정 재학생들은 학위 취득 이후 진로계획에 대해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비교적 명확한 진로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공 계열별로 보면 공학계열의 경우가 다른 계열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인문계열의 경우는 다른 계열학생들에 비해 진로계획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음. 박사과정 재학생들도 석사과정 재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위 취득 이후 진로계획에 대해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비교적 명확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음. 전공계열별로는 공학·자연계열의 경우가 인문·사회계열의 학생들보다 좀 더 구체적인 진로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취업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인문사회계열, 특히 인문계열 학생들의 이와 같은 불투명한 진로계획은 이들 학생 대상의 진로지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해줌.
- 석사과정 재학생들은 희망하는 업종은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 교육·연구분야, 건설분야순으로 나타났으며 희망직업에 대해서는 연구원, 교수, 교사, 엔지니어 순으로 나타남.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과 전공과의 관련성에 대해 90%이상의 학생들이 관련있다고 응답하여 자신의 전공을 활용한 직업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음. 박사과정 학생들은 희망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연구개발, 교육, 컨설팅 및 자문 순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희망하는 직무와 전공과의 관련성에 대해 90%이상의 학생들이 전공과 관련이 있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공과 관련된 업무를 희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라. 취업 전망

- 석사과정 재학생들은 자신의 전공분야의 석사학위자가 학위 취득 이후 3년 이내에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전공분야로의 취업에 대해 취업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 편이었고, 전공 계열별로는 공학계열의 경우가 다른 계열보다 전공분야로의 취업 가능성에 대해 좀 더 높게 나타났음. 박사과정의 재학생들은 자신의 전공분야의 박사학위자가 학위 취득 이후 3년 이내에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다소 어렵게 전망하고 있음. 특히 교수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게 보고 있으며, 국내 전체 취업처로의 취업 가능성이 다소 높게 나타남. 자신의 전공 분야의 산업체 향후 수요에 대해서는 인문계열이 다른 계열보다 낮게 나타나며, 취업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문계열의 경우가 낮게 나타나 인문계 박사의 취업난을 시사해줌.

3. 제언

향후 대학원 재학생 조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음.

가. 조사방법의 확대

-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는 석·박사 재학생 조사는 2004년도에 첫 번째 조사를 실시하였고, 2006년도에 두 번째 조사를 실시하였음. 2004년도 조사 보다 2006년도 조사 시 샘플 수가 확대되고 조사내용이 보완되었다고 할 수 있음. 향후 석·박사 재학생 조사에서 우편조사 이외에도 석·박사 재학생 집단 인터뷰, 심층면접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질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현재까지 일반대학원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향후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으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나. 조사결과의 활용

- 석·박사 재학생 조사는 석·박사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유일한 조사임. 기초 정책 자료가 미흡한 대학원 제도발전 정책과 고급인력정책에 이 조사결과와 자료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석·박사 재학생 조사는 올해가 2번째 조사로 현재 2개 년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음. 이것이 계속 축적됨과 동시에 연도별로 어떠한 추이를 보이는지 추후 보고서에서는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조사 데이터를 공개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분석하여 대학원에서의 고급인적자원 양성과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대학원 교육과정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수집한 자료를 각 대학별로, 각 학과별로 분석하여 해당대학 해당학과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분석 결과에 따라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진로지도와 관련된 자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본 석박사 재학생 조사와 석박사 졸업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원 학과의 특성과 향후 전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학원 세계」의 내용을 질적으로 양적으로 개선하여 대학원 진로지도를 위한 안내서로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제1장 서론

제1절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 조사의 필요성과 목적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국가 간에 고급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미국, 유럽 등 OECD 각국은 자국으로 우수한 인재 양성과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산업고도화로 인한 경제구조의 변화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도 산업을 선도해 갈 우수인력의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상황임.

고급인적자원이라 할 때, 다양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나, 대학교육이 보편화된 현재 상황에서 석박사급 인력을 고급인적자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음. 고급인적자원 확보는 우선적으로 고급인적자원양성을 담당하는 대학원 교육과 직결되어 있음. 대학원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바로 인적자원 확보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대학원 학생들이 학위취득이후의 진로는 고급인적자원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핵심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음.

2 미래의 직업세계 인프라 구축: 석·박사 재학생 조사

고급인적자원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와서 증폭되고 있으나 대학원 학생들에 대한 연구나 정책적인 관심은 최근까지 극히 미비함. 대학원학생들의 교육경험이나 대학원학생들의 진학 계획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수집은 극히 최근에 이루어졌음.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의 미래의 직업세계 사업의 일환으로 석·박사 재학생 조사가 최초의 체계적인 실태조사라고 할 수 있음. 이 실태조사는 2004년도 대학원 석·박사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학교육 만족도, 교육경험, 직업선택도, 졸업 후 진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였음.

본 조사는 2004년에 이어 2번째로 실시되는 재학생 조사로서, 2006년도 현재 우리나라 대학원 재학생들의 대학원 교육만족도와 교육경험, 직업선택도,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제2절 표집방법과 절차

□ 조사 대상 표집 절차

조사 대상자의 구체적인 표집 절차는 다음 <표 I-1>과 같음.

<표 I-1> 표집절차

구분	2004년	2006년
표집방식	1) 선정된 학과에 최소한 30명씩 allocate, 2) 5대권역별, 20개 주요대학, 24개 학과 대상으로 각 대학 학과당 최소 2명씩 할당	1) 2005년 교육통계에서 소분류 수준으로 전국 일반대학원 석사, 박사 재학생 수 파악 2) 소분류 수준에서 배출량(석사재학, 박사재학)상황을 대학·학과별로 파악(소트), 이때 10인 이상을 배출하는 대학은 제외 3) 조사 대상 학과(소분류) 선정(29개 소분류) 4) 조사 대상 학과(소분류)별로 2005년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조사인원(석사재학생 1,800명, 박사재학생 700명)을 4집단으로 그룹핑(4분위 계산)하여 배분·조정: 총 2,676명(석사: 1,746명, 박사: 930명) 5) 2)에서 조사대상 소계열별로 대학유형(국공립, 사립), 대학소재지(수도권, 충청, 영남, 호남)별로 교차분석을 하여 각 조사대상 대학의 규모를 선정 6) 선정된 대학과 학과 대상으로 최소 2명 이상이 되도록 무선 표집하고, 배출인원규모에 따라 조사 인원을 추가적으로 표집.
대상 학과 수	26개 계열	- 29개 계열 - 861개 학과(석사: 515, 박사: 861)
대상 대학수	20개교	- 41개교
조사 인원	총 2,811 (석사 1,941) (박사 870)	- 총 2,676(석사 1,746, 박사 930) - 국내 대학원 재학생 조사 인원임.

조사대상 학과(소계열)의 선정

선정된 조사대상 학과(소계열) 다음 <표 I-2>와 같음.

4 미래의 직업세계 인프라 구축: 석·박사 재학생 조사

<표 I-2> 조사학과 선정

대계열	2004 조사	2006 조사			
		원안		최종	
		ID	소계열	ID	소계열
인문	국어국문	1	국어·국문학	1	국어·국문학
		2	문화·민속·미술사학	2	역사·철학*
	역사학	3	역사·고고학	2	역사·철학*
	철학	4	철학·윤리학	2	역사·철학*
	영어영문	5	영미어·문학	3	영미어·문학
	외국어문학	6	독일어·문학	4	유럽어·문학**
		7	프랑스어·문학	4	유럽어·문학**
		8	일본어·문학	5	일본어·문학
		9	중국어·문학	6	중국어·문학
사회	심리학	10	심리학	7	심리학
	경영학	11	경영학	8	경영학
	경제학	12	경제학	9	경제학
	법학	13	법학	10	법학
	사회학	14	사회학	11	사회학
	행정학	15	행정학	12	행정학
교육	교육학	16	교육학	13	교육학
공학	건축공학	17	건축·설비공학	14	건축·설비공학
	기계공학	18	기계공학	15	기계공학
	전기전자전파	19	전산학·컴퓨터공학	16	전산학·컴퓨터공학
	정보통신컴퓨터	20	정보·통신공학	17	정보·통신공학
		21	전기공학	18	전기공학
	생명공학	22	전자공학	19	전자공학
	토목	23	토목공학	20	토목공학
	화학공학	24	화학공학	21	화학공학
자연	물리학	25	물리·과학	22	물리·과학
		26	생명과학	23	생명과학***
	생물학	27	생물학	23	생명과학***
	수학	28	수학	24	수학
	화학	29	화학	25	화학
		30	환경학	26	환경학
의약	약학	31	약학	27	약학
		32	의학	28	의학
디자인		33	디자인일반	29	디자인학****
		34	산업디자인	29	디자인학****
		35	시각디자인	29	디자인학****
		36	패션디자인	29	디자인학****

* 역사철학=문화·민속·미술사학, 역사·고고학, 철학·윤리학

** 유럽어·문학=독일어·문학, 프랑스어·문학, 스페인어·문학, 러시아어·문학

*** 생명과학= 생물학, 생명공학

**** 디자인학=디자인일반, 기타 디자인분야

□ 표집 결과

학과별 표집 결과 및 회수 현황은 다음 <표 I-3>과 같음.

<표 I-3> 학과별 표집 결과 및 회수 현황)

소계열	표집			회수현황		
	석사재학생	박사재학생	계	석사재학생	박사재학생	계
건축·설비공학	62	30	117	49	22	71
경영학	80	55	110	48	34	82
경제학	52	30	92	38	18	56
교육학	62	40	92	52	24	76
국어·국문학	62	30	92	38	24	62
기계공학	80	30	100	63	24	87
디자인학	38	20	68	17	8	25
물리·과학	62	30	102	46	27	73
법학	76	40	96	48	28	76
사회학	40	20	100	18	12	30
생물과학	100	60	130	81	53	134
수학	40	30	60	35	26	61
심리학	56	20	86	44	13	57
약학	62	30	92	34	16	50
역사·철학	62	30	92	21	17	38
영미어·문학	62	30	82	40	19	59
유럽어·문학	40	20	95	24	12	36
의학	80	55	100	29	19	48
일본어·문학	26	20	56	15	9	24
전기공학	58	30	98	44	21	65
전산학·컴퓨터공학	80	40	120	64	34	98
전자공학	80	40	110	71	34	105
정보·통신공학	62	30	82	25	12	37
중국어·문학	45	20	75	27	10	37
토목공학	62	30	92	47	21	68
행정학	40	30	70	20	14	34
화학	62	30	92	64	25	89
화학공학	60	30	90	38	19	57
환경학	55	30	85	37	10	47
계	1,746	930	2,676	1,266	640	1,906

1) 본 보고서에서는 학과별로 분석하지는 않고 <표 I-3>의 결과 중 교육계열과 의약계열, 디자인계열을 제외한 4개 계열로 나누어 분석하기로 하였으며 학과별 데이터는 『2007 대학원 세계』에서 활용함.

□ 대계열별 모집단 및 회수 결과

대계열별 모집단 및 회수 현황은 다음 <표 I-4>와 같음. 본 보고서에서는 다음의 4개 계열을 가지고 분석을 실시하였음.

<표 I-4> 대계열별 모집단 및 회수 현황

구분	대계열	2005교육통계(모집단)		조사결과	
		재학생	비율	응답자	비율
석사과정	인문	9,889	17.4	165	15.8
	사회	14,146	25.0	216	20.7
	공학	19,887	35.1	401	38.4
	자연	12,725	22.5	263	25.2
	계	56,674	100.0	1,045	100.0
박사과정	인문	4,616	16.7	91	16.9
	사회	7,717	27.9	119	22.1
	공학	8,747	31.7	187	34.8
	자연	6,555	23.7	141	26.2
	계	27,635	100.0	538	100.0

제3절 조사도구

본 조사의 내용은 크게 일반사항, 대학원 입학, 대학원 교육, 학위취득 후 진로로 구성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I-5>와 같음²⁾.

2) 조사도구는 <부록1>과 <부록2> 참조

<표 I -5> 조사내용

	석사 재학생	박사 재학생
일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 출생년도 • 거주지 • 출신학교(학사) • 입학시기(학부졸업, 석사입학) • 전공: 학부, 석사 • 결혼 • 자녀 • 현재 취업상황 • 부모교육수준 • 학부 졸업성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 출생년도 • 거주지 • 출신학교: 학부, 석사 • 입학시기: 석사취득, 박사입학 • 전공: 학부, 석사, 박사 • 결혼 • 자녀 • 현재 취업상황 • 부모교육수준 • 석사 졸업성적
대학원 입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사 진학동기 • 동일전공진학(전공변경이유) • 동일대학진학(학교변경이유) • 석사입학시 취업(취업상황, 석사진공과 관련성) • 석사진학시 정보 취득경로 • 외국유학 고려여부(국가) • 국내대학 석사진학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 진학동기 • 동일전공진학(전공변경이유) • 동일대학진학(학교변경이유) • 박사입학시 취업(취업상황, 박사진공과 관련성) • 박사진학시 정보 취득경로 • 외국유학 고려여부(국가) • 국내대학 석사진학 이유
대학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사과정 전반 만족도, 세부항목 만족도 • 석사과정 진학결정의 적절도 • 석사과정 교육의 발전을 위한 견해 • 장학금: 수혜여부, 수혜종류, 수혜기관, 액수 • 학업경비 재원 • 연구 프로젝트 참여: 참여여부, 참여과제수, 참여시 수당, 참여 자격, BK 사업 지원 수혜 여부, 연구프로젝트 참여 만족도(만족·불만족 이유) • 전공분야 석사수요 전망 • 외국 유학생과 수학경험, 외국 유학생의 국내 대학원 교육 영향,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과정 전반 만족도, 세부항목 만족도 • 박사과정 진학결정의 적절도 • 박사과정 교육의 발전을 위한 견해 • 장학금: 수혜여부, 수혜종류, 수혜기관, 액수 • 학업경비 재원 • 연구 프로젝트 참여: 참여여부, 참여과제수, 참여시 수당, 참여 자격, BK 사업 지원 수혜 여부, 연구프로젝트 참여 만족도(만족·불만족 이유) • 전공분야 박사수요 전망 • 외국 유학생과 수학경험, 외국 유학생의 국내 대학원 교육 영향,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의 필요성
학위 취득후 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위취득 이후 진로계획 설정, 진로계획 • 희망직업, 업종, 업무·분야, 석사 진공과 관련도, 희망보수, 직장형태 • 학위취득후 해외취업 의향, 국가, 이유 • 박사진학: 계획 여부, 진학 희망국가, 외국유학이유, • 석사취득후 취업 가능성: 전공분야 및 전체 분야 • 전공분야의 5년후 학부생 취업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위취득 이후 진로계획 설정, 진로계획 • 희망 업무·분야, 취업희망 기관 유형, 전공과 관련도, 희망보수 • 학위취득후 해외취업 의향, 국가, 이유 • 포스트 닥: 계획 여부, 희망국가, 외국 포스트닥 이유, 종료후 취업 희망 국가, 해외 취업 희망 이유 • 박사취득후 취업 가능성: 국내·외 전공분야 및 전체 분야 • 전공분야의 5년후 학부생 취업전망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석사과정 재학생의 교육·직업에 대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 <표 I-6>과 같음.

성별별로 보면, 남학생이 656명(62.8%), 여학생이 389명(37.2%)이었으며 거주지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 532명(51.0%), 충청·강원이 127명(12.2%), 영남 272명(26.1%), 호남·제주 112명(10.7%)으로 나타났음. 대학소재지별로 보면 수도권에 위치하는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이 497명(51.3%), 비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이 469명(48.5%)으로 나타났으며, 전공별로 보면 공학계열의 학생이 401명(38.4%)으로 가장 많았고 자연계열 263명(25.2%), 사회과학계열 216명(20.7%), 인문계열 165명(15.8%)순으로 나타났음.

<표 I-6> 석사과정 재학생의 응답자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656	(62.8)
	여자	389	(37.2)
	합계	1045	(100.0)
거주지	서울, 경기, 인천	532	(51.0)
	충청, 강원	127	(12.2)
	영남	272	(26.1)
	호남, 제주	112	(10.7)
	합계	1,043	(100.0)
지역 (대학소재지)	수도권	497	(51.3)
	비수도권	469	(48.5)
	기타	2	(0.2)
	합계	968	(100.0)
전공	인문계	165	(15.8)
	사회과학계	216	(20.7)
	공학계	401	(38.4)
	자연계	263	(25.20)
	합계	1,045	(100.0)

박사과정 재학생의 교육·직업에 대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 <표 I-7>과 같다.

성별별로 보면, 남학생이 362명(67.3%), 여학생이 176명(32.7%)이었으며 거주지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 268명(50.0%)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고 영남 131명(24.4%), 충청·강원 80명(14.9%), 호남·제주 57명(10.6%)순이었음. 전공별로 살펴보면, 공학계열이 187명(34.8%)으로 가장 많았고, 자연계열 141명(26.2%), 사회계열 119명(22.1%), 인문계열 91명(16.9%)순이었으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비수도권이 269명(50.6%), 수도권 258명(48.5%), 기타 5명(0.9%)순으로 나타났음.

<표 I-7> 박사과정 재학생의 응답자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자	362	(67.3)
	여자	176	(32.7)
	합계	538	(100.0)
거주지	서울·경기·인천	268	(50.0)
	충청·강원	80	(14.9)
	영남	131	(24.4)
	호남·제주	57	(10.6)
	합계	536	(100.0)
전공	인문계열	91	(16.9)
	사회계열	119	(22.1)
	공학계열	187	(34.8)
	자연계열	141	(26.2)
	합계	538	(100.0)
지역 (대학소재지)	수도권	258	(48.5)
	비수도권	269	(50.6)
	기타	5	(0.9)
	합계	532	(100.0)

제2장 석사과정 재학생의 교육·직업에 대한 조사 결과

제1절 석사과정 입학까지의 진로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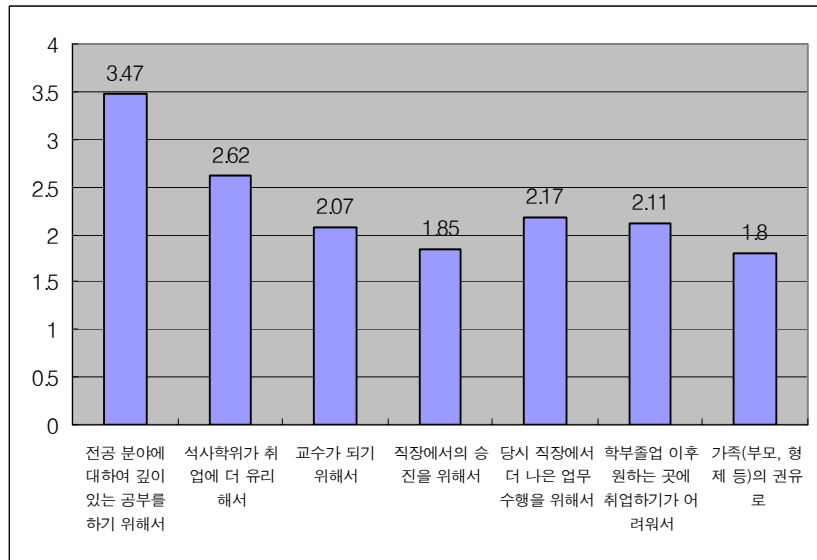
□ 석사과정 진학동기

석사과정 재학생들의 석사과정 진학동기를 분석한 것은 아래 <표 II-1>, [그림 II-1]과 같음. 대체적으로 석사과정 재학생들은 전공 분야에 대하여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하여 석사과정에 진학하였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으며 (3.47), 석사학위가 취업에 유리해서, 당시 직장에서 더 나은 업무수행을 위해서(2.62), 학부 졸업 이후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가 어려워서(2.11), 교수가 되기 위해서(2.0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직장에서의 승진을 위해서(1.85)나 가족의 권유(1.80)로 석사과정에 진학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는 낮은 편이었음. 한편 석사재학생 가운데 3명중 1명은 학부 졸업이후 취업하기 어려워서 대학원을 진학하였다고 하여 대학원 진학이 취업난으로 인한 유예 과정으로 선택하였음을 보여줌.

<표 II-1> 석사과정 진학 동기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전공 분야에 대하여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4 (0.4)	33 (3.2)	468 (45.8)	517 (50.6)	1022 (100.0)
석사학위가 취업에 더 유리해서	108 (11.0)	275 (27.9)	491 (49.8)	112 (11.4)	986 (100.0)
교수가 되기 위해서	332 (33.8)	342 (34.9)	211 (21.5)	96 (9.8)	981 (100.0)
직장에서의 승진을 위해서	457 (47.2)	239 (24.7)	232 (23.9)	41 (4.2)	969 (100.0)
당시 직장에서 더 나은 업무수행을 위해서	377 (38.9)	148 (15.3)	342 (35.3)	101 (10.4)	968 (100.0)
학부졸업 이후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가 어려워서	308 (31.5)	325 (33.3)	270 (27.6)	74 (7.6)	977 (100.0)
가족(부모, 형제 등)의 권유로	437 (44.6)	334 (34.1)	174 (17.8)	34 (3.5)	979 (100.0)

[그림 II-1] 석사과정 진학동기



석사과정 진학동기에 대하여 성별, 계열별,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II-2>와 같음. 성별로 보면 남녀 평균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남학생, 여학생모두 전공분야에 대하여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석사과정에 진학하였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음. 전공계열별로는 공학계열의 경우는 다른 계열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음. 석사과정 동기에 대해 '석사학위가 취업에 더 유리해서', '직장에서의 승진을 위해서', '당시 직장에서 더 나은 업무수행을 위해서' 항목의 경우 다른 계열보다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며, '교수가 되기 위해서'항목에서는 평균 1.77로 다른 계열보다 낮게 나타났음. 곧, 공학계열 석사 재학생들의 진학동기가 취업지향적인 성격이 더 강함을 볼 수 있음. 그리고 지역별로는 '학부졸업 이후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가 어려워서'라는 항목에 대하여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의 학생들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음. 이는 대학원 진학이 자의적인 선택이기 보다 어려운 취업난으로 인한 타의적인 선택의 경향이 비수도권 학생들에게서 더 높음을 보여줌.

<표 II-2> 석사과정 진학동기에 대한 성별, 계열별, 지역별 평균 비교

구분		성별		전공계열				지역	
		남자	여자	인문	사회	공학	자연	수도권	비수도권
전공분야에 대하여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사례수	643	379	158	211	393	260	487	459
	평균	3.46	3.48	3.64***	3.43***	3.44***	3.44***	3.48	3.44
	표준편차	0.59	0.56	0.54	0.63	0.56	0.58	0.59	0.58
석사학위가 취업에 더 유리해서	사례수	626	360	145	207	382	252	464	448
	평균	2.61	2.63	2.12***	2.57***	2.76***	2.73***	2.58	2.66
	표준편차	0.81	0.85	0.91	0.80	0.75	0.80	0.83	0.82
교수가 되기 위해서	사례수	624	357	145	207	380	249	464	442
	평균	2.02*	2.16*	2.53***	2.32***	1.77***	2.07***	2.14*	2.00*
	표준편차	0.97	0.97	0.95	0.96	0.85	1.00	1.01	0.92
직장에서의 승진을 위해서	사례수	613	356	145	205	375	244	460	435
	평균	1.91*	1.76*	1.61***	1.65***	2.08***	1.82***	1.86	1.83
	표준편차	0.95	0.88	0.88	0.86	0.94	0.91	0.95	0.91
당시 직장에서 더 나은 업무수행을 위해서	사례수	613	355	145	205	375	243	459	434
	평균	2.26***	2.03***	1.77***	1.95***	2.46***	2.15***	2.17	2.18
	표준편차	1.08	1.02	1.00	1.04	1.03	1.05	1.08	1.06
학부졸업 이후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가 어려워서	사례수	621	356	144	207	380	246	460	443
	평균	2.09	2.15	1.74***	2.11***	2.18***	2.23***	2.02**	2.22**
	표준편차	0.92	0.97	0.94	0.98	0.88	0.95	0.92	0.95
가족(부모, 형제 등)의 권유로	사례수	619	360	146	209	377	247	463	442
	평균	1.75*	1.89*	1.73	1.91	1.81	1.74	1.80	1.77
	표준편차	0.82	0.90	0.87	0.92	0.81	0.83	0.83	0.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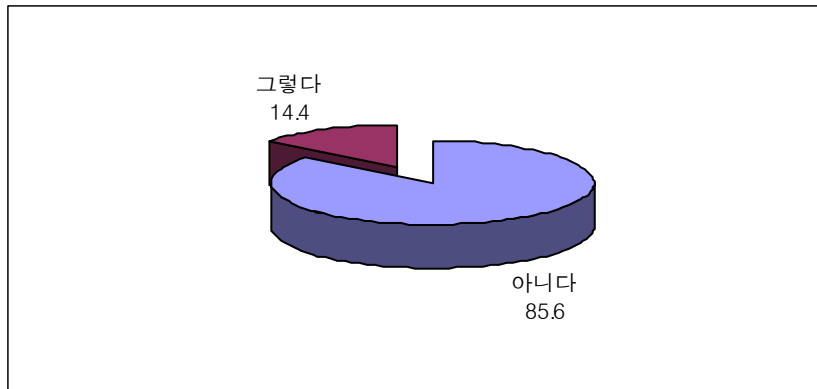
* p<0.05, ** p<0.01, *** p<0.001

전공변경 여부 및 전공만족도

석사과정 재학생들에게 자신의 석사과정 전공이 학부전공과 다른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85.6%의 학생들이 학부전공과 석사전공이 일치한다고 응답하였고 14.4%의 학생들이 학부전공과 석사전공이 다르다고 응답하였음.

[그림 II-2] 석사과정 전공 변경 여부(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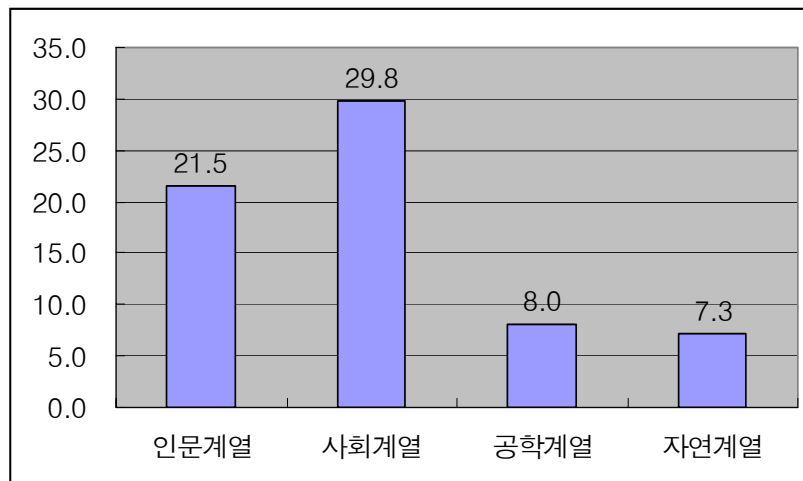
(단위: %)



석사과정 전공변경 여부에 대해 계열별로 살펴보면, 사회계열의 경우가 29.8%로 가장 높았으며, 인문계열 21.5%, 공학계열 8.0%, 자연계열 7.3%로 나타나 이공계열에서 전공변경비율이 인문사회계열보다 현저히 낮음.

[그림 II-3] 계열별 석사과정 전공변경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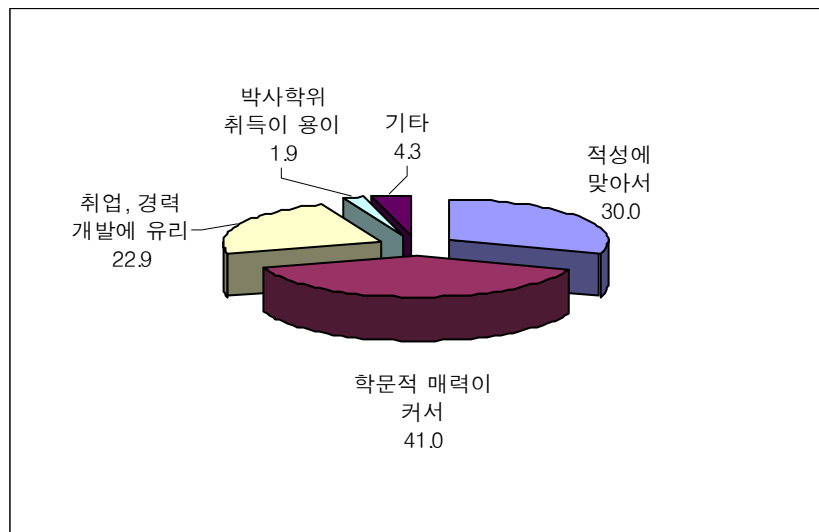
(단위: %)



석사과정의 전공 변경이유에 대하여 전체의 41.0%의 학생이 학문적 매력이 커서라고 응답하여 가장 많았고, 적성에 맞아서(30.0%), 취업·경력개발에 유리해서(22.9%), 기타(4.3%), 박사학위 취득이 용이해서(1.9%)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II-4] 석사과정 전공변경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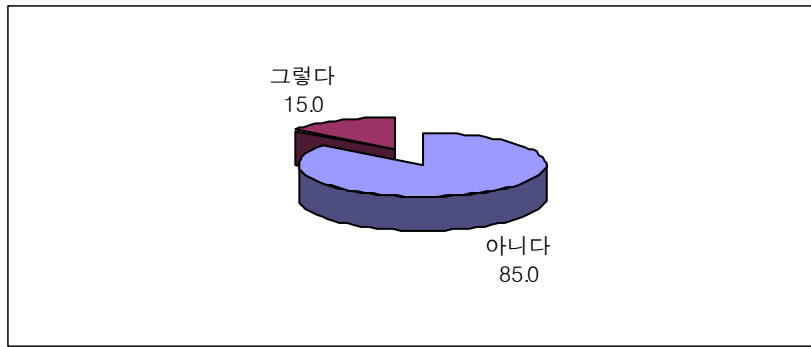
(단위: %)



석사과정 재학생들에게 과정 중의 취업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석사과정 중 취업을 한 경우가 전체의 15.0%를 차지하였고,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의 85.0%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석사과정생들은 학업에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줌.

[그림 II-5] 석사과정 중의 취업 여부

(단위: %)



석사과정 진학당시 취업 상태를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계열의 경우 취업을 한 경우가 다른 계열보다 높았으며(29.1%), 사회계열(23.3%), 공학계열(12.0%), 자연계열(3.8%)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별로는 여학생의 경우가 19.6%로 남학생(12.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의 경우가 16.0%로 수도권(14.5%)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II-3> 석사과정 진학 당시 취업 상태

(단위: %)

구분	계열별				성별		지역별	
	인문계열	사회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남자	여자	수도권	비수도권
아니다	70.9	76.7	88.0	96.2	87.8	80.4	85.5	84.0
그렇다	29.1	23.3	12.0	3.8	12.2	19.6	14.5	16.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석사과정중의 취업 실태에 대하여 정규직 풀타임으로 취업하고 있었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56.3%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비정규직 풀타임으로 취업한 학생이 27.8%,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가끔씩 일하고 있었다고 응답한 학생이 15.8%로 나타났다.

석사과정 재학생들에게 석사과정 진학에 필요한 정보를 어떠한 경로로 얻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학생들이 선배나 동료로부터 정보를 얻고 있다고 하였으며(48.9%), 학사과정의 지도교수(22.5%), 진학하려고 한 석사과정 대학원의 안내 정보(15.1%), 진학하려고 한 석사과정 대학원의 교수(10.0%), 기타(2.8%), 학부를 마친 대학의 진로지도 관련 기관(0.5%)순으로 나타났음.

<표 II-5> 석사과정 진학에 필요한 정보 획득 경로

(단위: %)

구분	전공계열				지역		전체
	인문	사회	공학	자연	수도권	비수도권	
학사과정의 지도교수	45 (27.8)	40 (19.0)	91 (22.8)	56 (21.7)	102 (20.9)	109 (23.4)	232 (22.5)
선배나 동료	58 (35.8)	97 (46.2)	223 (55.8)	126 (48.8)	237 (48.7)	237 (51.0)	504 (48.9)
학부를 마친 대학의 진로지도 관련 기관	1 (0.6)	2 (1.0)	2 (0.5)	1 (0.4)	4 (0.8)	2 (0.4)	6 (0.5)
진학하려고 한 석사과 정 대학원의 교수	17 (10.5)	14 (6.7)	38 (9.5)	34 (13.2)	54 (11.1)	44 (9.5)	103 (10.0)
진학하려고 한 석사과 정 대학원의 안내정보	36 (22.2)	47 (22.4)	37 (9.3)	36 (14.0)	76 (15.6)	60 (12.9)	156 (15.1)
기타	5 (3.1)	10 (4.8)	9 (2.3)	5 (1.9)	14 (2.9)	13 (2.8)	29 (2.8)
전체	162 (100.0)	210 (100.0)	400 (100.0)	258 (100.0)	487 (100.0)	465 (100.0)	1,030 (100.0)
$\chi^2=44.883$ p=.000					$\chi^2=15.172$ p=.126		

석사과정 재학생들에게 석사과정을 위한 유학고려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59.5%가 유학을 고려한 적이 없다고 하였으며, 전체의 40.4%가 유학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유학을 고려한 비율은 인문사회계열이 이공계열보다, 수도권 학생들이 비수도권 학생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6> 석사과정을 위한 유학고려 여부

(단위: %)

구분	전공계열				지역		전체
	인문	사회	공학	자연	수도권	비수도권	
없다	83(50.3)	109(50.9)	260(64.8)	169(64.5)	282(57.0)	293(62.6)	621(59.5)
있다	82(49.7)	105(49.1)	141(35.2)	93(35.5)	213(43.0)	175(37.4)	421(40.4)
전체	165(100.0)	214(100.0)	401(100.0)	262(100.0)	495(100.0)	468(100.0)	1,042(100.0)
$\chi^2=19.782$ p=.000					$\chi^2=6.129$ p=.047		

석사과정 재학생들에게 국내에서 석사과정을 결정하게 된 주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보면 ‘국내에서도 내가 기대하는 수준의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서’라고 전체의 38.3%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유학비용이 부담되어서(26.1%), 개인사정 때문에(21.0%), 내 전공분야는 박사과정에 유학가는 것이 더 유리해서(6.1%), 기타(4.2%), 원하는 외국대학으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기 어려워서(4.1%)순으로 나타났음.

<표 II-7> 국내에서 석사과정을 결정하게 된 주된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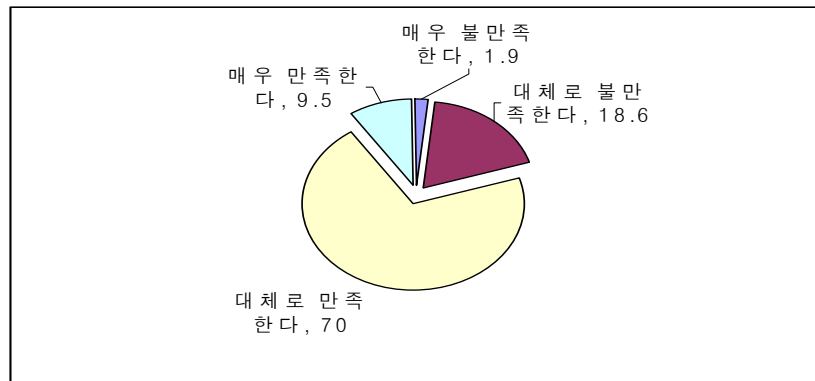
구분	전공계열				지역		전체
	인문	사회	공학	자연	수도권	비수도권	
국내에서도 내가 기대하는 수준의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서	64 (40.0)	66 (31.1)	157 (39.4)	105 (41.7)	198 (40.9)	161 (34.9)	392 (38.3)
원하는 외국대학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기가 어려워서	1 (0.6)	10 (4.7)	16 (4.0)	15 (6.0)	21 (4.3)	19 (4.1)	42 (4.1)
내 전공분야는 박사과정에 유학가는 것이 더 유리해서	19 (11.9)	18 (8.5)	7 (1.8)	19 (7.5)	41 (8.5)	18 (3.9)	63 (6.1)
유학비용이 부담되어서	34 (21.3)	61 (28.8)	110 (27.6)	62 (24.6)	120 (24.8)	130 (28.2)	267 (26.1)
개인사정때문에	35 (21.9)	51 (24.1)	89 (22.4)	40 (15.9)	75 (15.5)	119 (25.8)	215 (21.0)
기타	7 (4.4)	6 (2.8)	19 (4.8)	11 (4.4)	29 (6.0)	14 (3.0)	43 (4.2)
전체	160 (100.0)	212 (100.0)	398 (100.0)	252 (100.0)	484 (100.0)	461 (100.0)	1,022 (100.0)

제2절 석사과정 교육에 대한 견해

석사과정 재학생들에게 자신의 석사과정 생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0% 정도의 학생들이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불만족스럽다고 판단하는 학생들은 20%에도 미치지 않아 대체로 석사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임.

[그림 II-7] 석사과정 생활만족도(전체)

(단위: %)



석사과정 교육과정에 대한 세부항목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교수의 연구나 논문지도 및 교수 강의 등 교수관련 항목의 평균이 높게 나타나며, 장학금 등 경제적 지원, 졸업 후 취업이나 진학관련 진로정보 및 상담제공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8> 석사과정 교육과정 만족도(세부)

(단위: %)

구분	매우 불만족 한다	대체로 불만족 한다	대체로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합계	평균
전공 교과목 구성과 시수	34(3.3)	234(22.5)	681(65.6)	89(8.6)	1038(100.0)	2.79
실험·실습의 양과 내용	44(4.3)	320(31.1)	577(56.1)	88(8.6)	1029(100.0)	2.69
교육과정 내용	28(2.7)	235(22.6)	658(63.3)	118(11.4)	1039(100.0)	2.83
교수님 강의	21(2.0)	146(14.0)	652(62.6)	222(21.3)	1041(100.0)	3.03
교수님의 연구나 논문 지도	24(2.3)	160(15.4)	593(57.2)	259(25.0)	1036(100.0)	3.05
연구실, 실험·실습기기 등 교육 및 연구시설	94(9.1)	344(33.2)	442(42.7)	156(15.1)	1036(100.0)	2.64
장학금 등 경제적 지원	161(15.5)	364(35.1)	391(37.7)	122(11.8)	1038(100.0)	2.46
RA나 TA 기회	86(8.4)	320(31.4)	517(50.7)	97(9.5)	1020(100.0)	2.61
졸업후 취업이나 진학 관련 진로정보 및 상담제공	127(12.3)	464(45.0)	369(35.8)	70(6.8)	1030(100.0)	2.37

석사과정의 교육과정 만족도에 대해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교육과정의 구성이나 교수님의 지도 등 교육과정 운영면에서 인문사회계열이 다소 높고, 실험실습이나 경제적인 지원 측면에서는 이공계열의 만족도가 더 높은 편임.

<표 II-9> 전공계열별, 지역별 석사과정 교육과정 만족도

(단위: %)

구분	전공계열				지역		전체평균
	인문	사회	공학	자연	수도권	비수도권	
전공교과목 구성과 시수	2.94***	2.88***	2.75***	2.71***	2.77	2.80	2.79
실험·실습의 양과 내용	2.67	2.59	2.71	2.75	2.66	2.72	2.69
교육과정 내용	2.95***	2.93***	2.80***	2.73***	2.81*	2.85*	2.83
교수님 강의	3.16***	3.11***	3.01***	2.93***	3.01	3.04	3.03
교수님의 연구나 논문지도	3.05*	2.96*	3.13*	3.00*	2.99*	3.12*	3.05
연구실, 실험·실습기기 등 교 육 및 연구시설	2.30***	2.36***	2.86***	2.73***	2.60	2.70	2.64
장학금 등 경제적지원	2.50***	2.22***	2.56***	2.46***	2.43	2.49	2.46
RA나 TA기회	2.59*	2.49*	2.64*	2.70*	2.60	2.63	2.61
졸업후 취업이나 진학관련 진로 정보 및 상담제공	2.26***	2.19***	2.56***	2.30***	2.36	2.39	2.37

주: * p<0.05, ** p<0.01, *** p<0.001

한편, 석사 재학생들은 정량화된 척도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향후 대학원 교육의 개선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학생들은 매우 다양하고 구체적인 개선 요구를 하고 있음. 주관식 설문지에 응답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 <표 II-10>이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앞의 교육과정 만족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낸 경제적 지원, 시설 부분에 대한 요구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교수들의 성의있는 지도, 다양화된 커리큘럼의 운영, 산업체의 수요에 맞는 커리큘럼의 구성, 졸업 후의 진로를 위한 정보제공과 지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음.

<표 II-10> 석사재학생들의 대학원 교육과정개선을 위한 요구분석

석사 재학생 건의사항	빈도	퍼센트	건의내용
경제적 지원	245	36.8	인건비 인상과 TA, 장학금지급, TA업무량완화
			주차권 지원
			근무지의 생활여건및교통수단
			소모품보충
실험, 실습 등의 연구환경 및 자료개선 (연구실)	113	17.0	투명한 경제적지원
			각학교에서외국논문집을쉽게접할수있도록기회를제공
			교액의 실험장비 부족
			공간이너무협소함
			기업체와 동등한 기술적 실험, 실습 환경 제공
			대학원생들을위한세미나실및공부할수있는여건이너무부족,도서자료양 이매우부족
교육환경 (강의실)	18	2.7	실습기기 및 공동 연구원 확충, 세미나/공동연구 활성화
			실험실 여건과 맞지 않은 행정 규칙, 대학원 실험에 대한 지원 부족
			대학원 연구실 및 전용 강의실 필요
			대학원강의인원수조절
커리큘럼 (교과목 구성)	94	14.1	수업시간이 너무 많다
			사립대학과 비슷한 교육환경시설이 필요함
			각종학회/세미나참석의기회부여와경비 지원이 있으면 좋겠음
			관심분야에 대한 심층학습 기회 부여
			교과과정내의 외국어학습 프로그램 확대
			다른 분야와의 연계, 다양한 교육 과정
			들을 과목이 너무 없다.출퇴근 시간을 보장
실무 경험 쌓을 기회가 적다			
이공계경우 시대흐름에 따를 교육과정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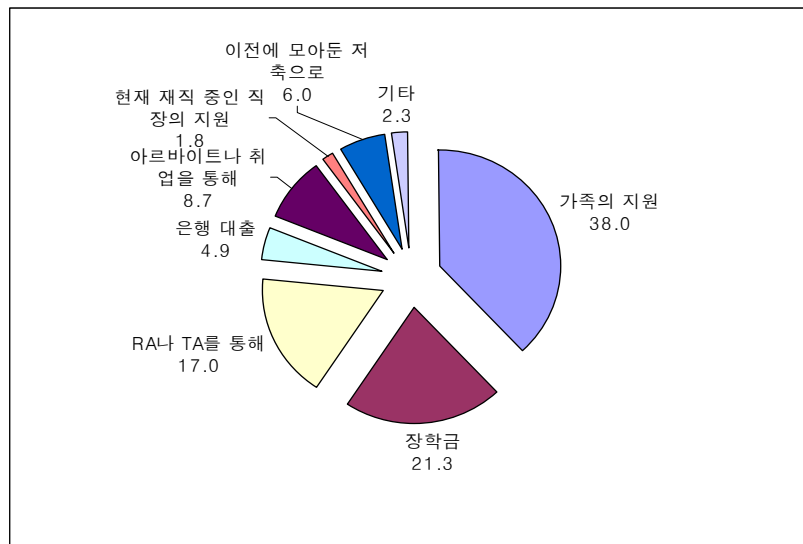
<표 계속>

석사 재학생 건의사항	빈도	퍼센트	건의내용
교수 강의의 질적 내용	68	10.2	열의있는 강의
			교수 임용의 다양화
			논문연구수업을 강화해야하고 실무쪽에도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보다 질높은 교육 & 교수와의 더 많은 대화
			석사과정에 맞는 강의 방식, 논문 작성법 상세지도
			외국교수의영입, 경제적인지원, 국내석·박사출신에대한인식개선
진로지도	44	6.6	석사과정이후 취업과 박사과정 진학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확실한 정보제공
			유학관련 정보가 더욱 많아져야함
			학부생에게 집중되어있는 취업관련정보 등 확대
과중한 행정업무, 자기공부 시간 부족	33	5.0	과도한 조교 업무를 경감
			실험실 내에서의 잔심부름 좀 그만했으면
			연구비지원과 요구되는 서류가 많음. 연구하기도 매우 바쁜데 요구되는 서류 때문에 시간이 부족 교수님들이학생들연구시간을좀더고려하여연구에좀더집중할 시간을만들어주었으면함.
학생 보충, 정보 교환 및 교환학생 제도	24	3.6	국외 다른 대학과의 교류
			선후배유대를활발히 하여 수업관련정보제공 활성화
			수업 후 학문적 의문점을 편하게 물어볼 TA가 필요
			폴타임 학생의 충원
복지	15	2.3	학생수 감소에 따른 환경악화
			학교 내의 숙식공간의 제공 대우가 열악하다
기타	13	2.0	석사발탁시 규정강화
			투명한 연구비관리
			교수들의 비리를 확실히 뿌리뽑아야함
			입학생의 질향상
			관련된 산업체와의 교류 대학원학생의 실제생활에 이해가 부족
합계	666	100.0	

석사과정 재학생들은 등록금과 생활비 등 대학원 석사과정에 필요한 경비는 가족의 지원이 38.0%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장학금(21.3%), TA나 RA를 통해(17.0%),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통해(8.7%), 이전에 모아둔 저축으로(6.0%), 은행대출(4.9%), 기타(2.3%),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의 지원(1.8%)순으로 나타났음. 곧, 장학금이나 TA, RA 등 대학의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석사과정경비를 마련하는 비율은 38% 정도에 그치고 있어 다수의 학생들은 가족의 지원이나 스스로 학비 마련하고 있음.

[그림 II-8] 대학원 경비 조달방법(1순위)

(단위: %)



석사과정 경비 충당을 계열별로 살펴보면, 사회계열의 가족의 지원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고, 인문계열의 경우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충당한다는 비율이 높음. 이공계열의 경우 장학금 지원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11> 계열별 학비조달방법 1순위

(단위: %)

구분	인문계열	사회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전체
가족의 지원	37.8	48.8	36.6	31.0	38.0
장학금	22.0	7.9	23.9	27.9	21.3
RA나 TA를 통해	7.3	20.5	18.3	18.2	17.0
은행 대출	1.8	3.7	6.9	4.7	4.9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통해	20.7	9.3	3.8	8.1	8.7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의 지원	2.4	0.9	1.3	3.1	1.8
이전에 모아둔 저축으로	7.9	8.4	5.6	3.5	6.0
기타	0.0	0.5	3.6	3.5	2.3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석사과정 경비 재원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우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나 수도권의 경우 장학금이나 RA, TA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비수도권의 경우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통해 충당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II-12> 지역별 학비조달방법 1순위

(단위: %)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전체
가족의 지원	38.1	37.0	37.5
장학금	23.4	19.3	21.5
RA나 TA를 통해	18.5	16.5	17.5
은행 대출	4.3	6.1	5.1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통해	6.7	10.0	8.4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의 지원	1.6	2.4	2.0
이전에 모아둔 저축으로	6.1	5.4	5.8
기타	1.2	3.3	2.2
합계	100.0	100.0	100.0

□ 장학금

석사과정 학생들에게 장학금 수혜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1,036명의 응답자 중에서 639명(61.7%)이 받았다고 응답하였고, 397명(38.3%)이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음.

<표 II-13> 장학금 수혜여부

(단위: %)

구분	빈도	백분율
받지 않았다	397	38.3
받았다	639	61.7
합계	1036	100.0

계열별로 볼 때, 인문계열과 공학계열의 장학금 수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수도권 학생들의 장학금 수여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14> 계열별·지역별 장학금 수혜여부

구분	계열별				지역별		전체
	인문계열	사회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수도권	비수도권	
받지 않았다	50 (35.0)	97 (41.3)	145 (36.6)	105 (40.1)	181 (36.7)	178 (38.4)	397 (38.3)
받았다	93 (65.0)	138 (58.7)	251 (63.4)	157 (59.9)	312 (63.3)	286 (61.6)	639 (61.7)
계	143 (100.0)	235 (100.0)	396 (100.0)	262 (100.0)	493 (100.0)	464 (100.0)	1036 (100.0)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 수혜기관을 조사한 결과, 교내 장학금을 받았다고 한 학생이 전체 615명중에 583명으로 전체의 94.8%를 차지하였고, 교외 장학금을 받았다고 한 학생이 32명으로 전체 5.2%를 차지하였음.

<표 II-15> 장학금 수혜기관

(단위: %)

구 분	빈도	백분율
교내장학금	583	94.8
교외장학금	32	5.2
합계	615	100.0

□ 프로젝트 참여

- 참여 상황

석사과정 재학생들에게 현재 지도교수(또는 소속대학의 교수)의 연구 프로젝트(외부기관의 연구비 지원 하에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56.2%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참여하고 싶으나 참여기회가 없다(31.0%), 참여기회는 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12.8%)로 나타났다. 특히 참여하고 싶으나 기회가 없다는 비율은 인문계열 61.9%, 사회계열 49.3%에 달하고 있음. 이 결과는 석사과정 학생들의 수요에 비해 프로젝트 참여기회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특히 인문사회계열에서 이 경향이 두드러짐.

<표 II-16> 프로젝트 참여 상황

(단위: %)

구분	전공 계열				지역		전체
	인문	사회	공학	자연	수도권	비수도권	
참여하고 있다	38 (23.8)	48 (23.0)	302 (76.1)	185 (72.8)	266 (54.6)	268 (58.8)	573 (56.1)
참여기회는 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23 (14.4)	58 (27.8)	38 (9.6)	12 (4.7)	56 (11.5)	62 (13.6)	131 (12.8)
참여하고 싶으나 참여기회가 없다	99 (61.9)	103 (49.3)	57 (14.4)	57 (22.4)	165 (33.9)	126 (27.6)	316 (30.9)
계	160 (100.0)	209 (100.0)	397 (100.0)	254 (100.0)	487 (100.0)	456 (100.0)	1,020 (100.0)
	$\chi^2=277.579$ p=.000				$\chi^2=18.300$ p=.001		

- 연구 프로젝트 참여개수

석사과정 재학생들에게 현재 몇 개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응답한 총 301명의 학생 중에 1개라고 응답한 학생이 368명(64.6%)으로 가장 많았고, 2개라고 한 학생이 141명(24.7%), 3개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59명(10.3%)으로 나타났다. 인문사회계열 과정생들은 주로 1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데 비해 이공계열 학생들은 2개이상 하는 비율이 높음.

<표 II-17> 연구 프로젝트 참여개수

(단위: %)

구분	전공 계열				지역		전체
	인문	사회	공학	자연	수도권	비수도권	
1개	36 (92.3)	40 (81.6)	174 (57.8)	118 (65.6)	172 (64.7)	170 (63.9)	368 (64.6)
2개	2 (5.1)	7 (14.3)	90 (29.9)	42 (23.3)	68 (25.6)	67 (25.2)	141 (24.7)
3개 이상	1 (2.6)	1 (2.0)	37 (12.3)	20 (11.1)	25 (9.4)	29 (10.9)	59 (10.3)
전체	39 (100.0)	49 (100.0)	301 (100.0)	180 (100.0)	266 (100.0)	266 (100.0)	569 (100)
평균참여개수	1.10	1.16	1.60	1.47	1.45	1.53	1.45
	$\chi^2=37.943$ p=.000				$\chi^2=1.315$ p=.725		

- 연구 프로젝트 참여 수당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석사과정생들에게, 월평균 어느 정도 수당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66.2%가 21~50만원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았고, 20만원 이하가 23.3%, 51~100만원이 9.9%의 순으로 나타남.

<표 II-18> 연구 프로젝트 참여 수당

(단위: %)

구분	전공 계열				지역		전체
	인문	사회	공학	자연	수도권	비수도권	
20만원 이하	8(21.1)	13(24.5)	66(25.2)	30(20.3)	51(21.6)	59(25.2)	117(23.3)
21~50만원	28(73.7)	38(71.7)	156(59.5)	110(74.3)	159(67.4)	154(65.8)	332(66.2)
51~100만원	2(5.3)	2(3.8)	38(14.5)	8(5.4)	25(10.6)	20(8.5)	50(9.9)
100만원 초과	0(0.0)	0(0.0)	2(0.8)	0(0.0)	1(0.4)	1(0.4)	2(0.3)
전체	38(100)	53(100)	262(100)	148(100)	236(100)	234(100)	501(100)
	$\chi^2=18.081$ p=.034				$\chi^2=1.209$ p=.751		

- 연구 프로젝트 참여 자격

석사과정 재학생들에게 연구 프로젝트에 주로 어떠한 자격으로 참여하였는지 대해 조사한 결과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였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80.6%를 차지하였고,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 학생이 전체의 17.1%를 차지하였으며 기타자격으로 참여한 경우가 2.2%로 나타났다.

<표 II-19> 연구 프로젝트 참여 자격

구분	전공 계열				지역		전체
	인문계열	사회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수도권	비수도권	
공동연구원	1(2.6)	3(5.4)	69(22.9)	26(14.3)	50(18.7)	45(16.6)	99(17.1)
연구보조원	35(89.7)	53(94.6)	226(75.1)	152(83.5)	211(78.7)	221(81.5)	466(80.6)
기타	3(7.7)	0(0.0)	6(2.0)	4(2.2)	7(2.6)	5(1.8)	13(2.2)
전체	39(100)	56(100)	301(100)	182(100)	268(100)	271(100)	578(100)
	$\chi^2=25.710$ p=.000				$\chi^2=0.811$ p=.667		

- 참여 만족도

석사과정 재학생에게 지도교수(또는 소속대학 교수)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만족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II-20>과 같음. 대체로 만족한다가 전체의 70.5%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고, 매

우 만족한다 15.1%를 차지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85%정도의 학생들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20> 프로젝트 참여 만족도

구분	빈도(명)	백분율(%)
매우 불만족한다	18	3.0
대체로 불만족한다	70	11.5
대체로 만족한다	430	70.5
매우 만족한다	92	15.1
합계	610	100.0

- 연구 프로젝트 참여시 만족하는 이유

연구 프로젝트 참여에 만족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만족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공지식 습득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58.3%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네트워킹 기회를 갖게 된다(20.3%),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17.3%), 지도교수와의 인간관계를 쌓을 기회가 된다(3.2%), 기타(0.9%)순으로 나타났음.

<표 II-21> 만족 이유

(단위: %)

구분	전공 계열				지역		전체
	인문	사회	공학	자연	수도권	비수도권	
전공지식 습득에 도움이 된다	22(59.5)	26(47.3)	166(63.8)	90(53.3)	129(53.8)	150(61.7)	304(58.3)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11(29.7)	8(14.5)	37(14.2)	33(19.5)	44(18.3)	41(16.9)	89(17.3)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네트워킹 기회를 갖게 된다	3(8.1)	15(27.3)	47(18.1)	41(24.3)	52(21.7)	47(19.3)	106(20.3)
지도교수와의 인간관계를 쌓을 기회가 된다	1(2.7)	6(10.9)	7(2.7)	3(1.8)	11(4.6)	4(1.6)	17(3.2)
기타	0(0.0)	0(0.0)	3(1.2)	2(1.2)	4(1.7)	1(0.4)	5(0.9)
전체	37(100)	55(100)	260(100)	169(100)	240(100)	243(100)	521(100)
	$\chi^2=27.084$ p=.008				$\chi^2=6.987$ p=.137		

- 연구 프로젝트 참여시 불만족하는 이유

석사과정 재학생들에게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불만족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잡무가 너무 많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35.2%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시간을 과도하게 투자하여야 한다(30.5%), 보수가 너무 작다(20.5%), 기타(8.2%), 전공과 무관하다(5.2%)순으로 나타났음.

<표 II-22> 불만족 이유

구분	전공계열				지역		전체
	인문	사회	공학	자연	수도권	비수도권	
시간을 과도하게 투자하여야 한다	2(16.7)	9(37.5)	32(36.8)	9(19.1)	24(25.8)	25(35.7)	52(30.5)
전공과 무관하다	0(0.0)	2(8.3)	4(4.6)	3(6.4)	7(7.5)	2(2.9)	9(5.2)
보수가 너무 작다	5(41.7)	4(16.7)	16(18.4)	10(21.3)	21(22.6)	13(18.6)	35(20.5)
잡무가 너무 많다	4(33.3)	7(29.2)	30(34.5)	19(40.4)	33(35.5)	24(34.3)	60(35.2)
기타	1(8.3)	2(8.3)	5(5.7)	6(12.8)	8(8.6)	6(8.6)	14(8.2)
전체	12(100.0)	24(100.0)	87(100.0)	47(100.0)	93(100.0)	70(100.0)	170(100)
	$\chi^2=10.921$ p=.536				$\chi^2=3.206$ p=.524		

외국인 유학생

- 외국인 유학생과 수학한 경험 여부

석사과정 재학 중에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수학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44.5%이었고,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55.5%로 나타나 경험이 없는 학생이 조금 더 많았음.

<표 II-23> 외국인 유학생과 수학한 경험 여부

구 분	빈도	백분율
있다	464	44.5
없다	579	55.5
합계	1043	100.0

-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내 대학원 석사과정에 미치는 영향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학생이 464명으로 전체의 44.7%를 차지하였고, 별 다른 영향이 없다 375명(36.1%), 잘 모르겠다 121명(11.6%), 부정적이다 79명(7.6%)으로 나타남.

<표 II-24>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 대학원 석사과정에 미치는 영향

구 분	빈도	백분율
긍정적이다	464	44.7
별다른 영향이 없다	375	36.1
부정적이다	79	7.6
잘 모르겠다	121	11.6
합계	1039	100.0

- 우리나라 대학원 발전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정책

석사과정 재학생들에게 우리나라 대학원 발전을 위하여 외국인 학생들에게 국내에서 유학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II-25>와 같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필요한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56.3%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16.2%로 70%이상의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표 II-25>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국내에서 유학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

(단위: %)

구분	전공계열				지역		전체
	인문	사회	공학	자연	수도권	비수도권	
매우 필요하다	41 (25.0)	30 (13.9)	63 (15.8)	35 (13.4)	88 (17.8)	65 (13.9)	169 (16.2)
필요한 편이다	92 (56.1)	126 (58.3)	218 (54.5)	151 (57.6)	269 (54.3)	273 (58.3)	587 (56.3)
필요하지 않다	14 (8.5)	26 (12.0)	51 (12.8)	31 (11.8)	50 (10.1)	62 (13.2)	122 (11.7)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1.2)	5 (2.3)	18 (4.5)	5 (1.9)	18 (3.6)	10 (2.1)	30 (2.8)
잘모르겠다	15 (9.1)	29 (13.4)	50 (12.5)	40 (15.3)	70 (14.1)	58 (12.4)	134 (12.8)
전체	164 (100.0)	216 (100.0)	400 (100.0)	262 (100.0)	495 (100.0)	468 (100.0)	1042 (100)
	$\chi^2=21.520$ p=.043				$\chi^2=8.996$ p=.343		

제3절 석사학위 취득 이후의 진로계획

석사과정 재학생들에게 학위 취득 이후 진로 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구체적이지는 않으나 비교적 명확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 1,042명 중에서 443명으로 전체의 42.5%를 차지하였고, 좀 막연하지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갖고 있다가 전체의 28.0%를 차지하였으며, 구체적이고 명확하나 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는 전체의 21.5%를 차지하였음. 반면에 아직 무엇을 할지 전혀 결정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도 8.0%를 차지하였음. 이 같은 결과는 석사과정생들은 대체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비율은 다소 낮지만, 대체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체적인 방향성과 명확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26> 석사학위 취득 후 진로계획

(단위: %)

구분	전공계열				지역		전체
	인문	사회	공학	자연	수도권	비수도권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을 갖고 있다	34 (20.9)	40 (18.5)	103 (25.7)	47 (17.9)	115 (23.1)	94 (20.1)	224 (21.5)
구체적이지는 않으나 비교적 명확한 계획을 갖고 있다	71 (43.6)	98 (45.4)	167 (41.6)	107 (40.8)	213 (42.9)	197 (42.2)	443 (42.5)
좀 막연하지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은 갖고 있다	41 (25.2)	59 (27.3)	108 (26.9)	84 (32.1)	133 (26.8)	134 (28.7)	292 (28.5)
아직 무엇을 할 지 전혀 결정하지 못하였다	17 (10.4)	19 (8.8)	23 (5.7)	24 (9.2)	36 (7.2)	42 (9.0)	83 (8.0)
계	163 (100.0)	216 (100.0)	401 (100.0)	262 (100.0)	497 (100.0)	467 (100.0)	1,042 (100.0)
	$\chi^2=13.053$ p=.160				$\chi^2=5.865$ p=.439		

석사과정 재학생들에게 석사학위 취득 이후의 진로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취업을 하고자 한다는 경우가 전체의 53.6%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음. 박사과정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경우가 29.4%, 취업과 박사과정 진학을 병행하고자 하는 경우가 17.0%로, 박사과정 진학 계획비율이 43%로 나타남. 인문계열이 취업하고자 하는 비율이 낮은 대신 박사과정 진학비율이 다른 계열에 비해 현저히 높음. 이에 반대로 공학계열은 타 계열에 비해 취업 계획이 현저히 높고 박사과정 진학계획이 현저히 낮음.

<표 II-27> 진로 계획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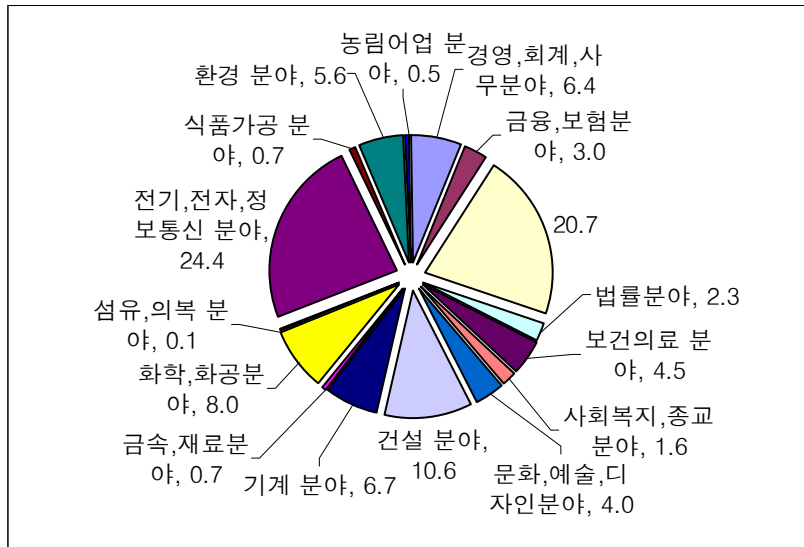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전공계열				지역별		전체
	인문	사회	공학	자연	수도권	비수도권	
취업을 하고자 한다	39 (26.4)	87 (44.4)	271 (71.3)	120 (49.8)	247 (53.6)	230 (53.7)	571 (53.6)
취업과 박사과정 진학을 병행하고자 한다	40 (27.0)	50 (25.5)	38 (10.0)	36 (14.9)	59 (12.8)	91 (21.3)	164 (17.0)
박사과정으로 진학하고자 한다	69 (46.6)	59 (30.1)	71 (18.7)	85 (35.3)	155 (33.6)	107 (25.0)	284 (29.4)
전체	148 (100.0)	196 (100.0)	380 (100.0)	241 (100.0)	461 (100.0)	428 (100.0)	965 (100.0)
	$\chi^2=107.792$ p=.000				$\chi^2=15.902$ p=.003		

석사과정 재학생들에게 희망하는 업종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그림 II-9]와 같음.

[그림 II-9] 희망 업종

(단위: %)



- 희망 직업

석사과정 재학생들에게 희망하는 직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 희망직업 상위 10개에 해당되는 직업들은 다음 <표 II-28>과 같았음.

<표 II-28> 희망 직업(상위 10개)

구분	빈도(명)	백분율(%)
1. 연구원	95	9.1
2. 교수	22	2.1
3. 교사	20	1.9
4. 엔지니어	16	1.5
5. 공무원 시험 계획	13	1.2
6. 프로그래머(게임)	10	1.0
7. 대학교수(강사)	7	0.7
8. 하드웨어연구원	7	0.7
9. 통·번역원	6	0.6
10. 연약지반기술자	6	0.6
11. 건설기술원	6	0.6

자신의 희망직업과 전공과의 관련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음 <표 II-29>와 같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우 관련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총 응답자 730명중에서 395명으로 54.1%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으며, '대체로 관련있다' 라고 응답한 경우가 309명으로 42.3%를 차지하였음. 전체의 96.4%가 '관련있다' 라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석사 재학생들은 자신의 전공 분야를 활용할 수 있는 직업 분야에 종사하고자 함을 알 수 있음.

<표 II-29> 희망 직업과 전공과의 관련성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관련없다	7	1.0
대체로 관련없다	19	2.6
대체로 관련있다	309	42.3
매우 관련있다	395	54.1
합계	730	100.0

희망 직업과 전공과의 관련성에 대해 전공계열별로 살펴본 결과, 공학계열의 경우가 평균 3.56으로 가장 높았으며 인문계열(3.49), 자연계열(3.46), 사회계열(3.40)순으로 나타났음.

<표 II-30> 전공계열별, 지역별 희망직업과 전공과의 관련성

구분		평균*	사례수	P<.05
전공계열	인문계열	3.49	94	
	사회계열	3.40	149	
	공학계열	3.56	318	
	자연계열	3.46	169	

주: *1=전혀 관련 없다, 2=대체로 관련 없다, 3=대체로 관련 있다, 4=매우 관련 있다.

- 희망 연봉

석사과정 재학생들이 취업 이후 받고자 하는 희망하는 연봉에 대해 조사한 결과, 38.2%의 학생들이 3000~3499만원 정도의 연봉을 기대하고 있었으며, 응답자들의 희망연봉 평균 금액은 3178만원이었음.

<표 II-31> 희망 연봉

구분	빈도(명)	백분율(%)
2,000만원 미만	7	1.0
2,000~2,499만원	90	13.1
2,500~2,999만원	122	17.8
3,000~3,499만원	262	38.2
3,500~3,999만원	89	13.0
4,000~4,999만원	78	11.4
5,000~5,999만원	25	3.6
6,000만원 이상	12	1.8
합계	685	100.0
평균	3178만원	

석사과정 재학생들이 취업 이후 받고자 하는 희망하는 연봉에 대해 전공계열별로 살펴본 결과, 사회계열의 희망연봉이 3,372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학계열(3,227만원), 자연계열(3,056만원), 인문계열(2,903만원)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경우가 평균 3,345만원, 비수도권의 경우가 평균 3,010만원으로 나타나 수도권 석사 재학생들이 희망 연봉 수준이 조금 높았음.

<표 II-32> 계열별, 직업별 희망 연봉

구분		평균(만원)	사례수(명)	
전공계열	인문계열	2,903	85	F=3.464 P=0.016
	사회계열	3,372	138	
	공학계열	3,227	309	
	자연계열	3,056	153	
지역	수도권	3,345	314	T=3.512
	비수도권	3,010	323	P=0.000

- 희망 취업처

석사과정 재학생들에게 희망 직장 형태가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II-33>과 같음. 공공기관과 정부기관등 공공부문에 취업하고자 하는 비율이 36.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민간 대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34.2%를 차지하고 있음. 중소기업에 취업희망자는 7%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표 II-33> 희망하는 직장의 형태

구분	빈도	백분율
정부기관	60	8.5
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 정부투자기관, 공사)	198	28.2
초,중등학교	33	4.7
대학교	49	7.0
사회교육기관(학원 등)	7	1.0
민간 대기업	240	34.2
민간 중소기업	42	6.0
외국계 기업	48	6.8
비영리 민간기구	13	1.9
자영업	8	1.1
기타	4	0.6
합계	702	100.0

석사과정 재학생들에게 석사학위 취득 이후 해외취업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II-34>와 같음. 전체적으로 '전혀 없다' 라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60.1%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가능하면 해외에서 취업하고 싶다고 한 학생이 37.2%,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2.7%로 나타났다. 공학계열 석사들이 외국 취업선호 비율이 높았음.

<표 II-34> 석사학위 취득 이후 해외 취업 계획

(단위: %)

구분	전공계열				지역		전체
	인문	사회	공학	자연	수도권	비수도권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	0(0.0)	7(4.8)	7(2.2)	6(3.5)	7(2.1)	10(2.9)	20(2.7)
계획은 없으나 해외 취업 희망	29(31.2)	42(28.8)	141(44.5)	57(33.5)	128(38.9)	117(34.5)	269(37.2)
전혀없다	64(68.8)	97(66.4)	169(53.3)	107(62.9)	194(59.0)	212(62.5)	437(60.1)
전체	93(100)	146(100)	317(100)	170(100)	329(100)	339(100)	726(100)

석사과정 재학생들에게 취업하고 싶은 국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에 취업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70%에 이르고 있고 그 다음은 일본 10%로 미국에 취업하고자 하는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음.

<표 II-35> 취업하고 싶은 국가

구분	전공계열				지역		전체
	인문	사회	공학	자연	수도권	비수도권	
미국	14	35	96	41	94	74	186(69.7)
일본	5	1	17	6	9	17	29(10.9)
중국	5	1	0	0	2	3	6(2.2)
호주	0	2	3	2	2	5	7(2.6)
캐나다	0	1	6	0	3	4	7(2.6)
유럽	2	4	7	3	7	9	16(6.0)
기타	0	2	9	4	5	7	15(5.6)
계	27	46	138	56	123	119	267(100.0)

해외 취업을 하고자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되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44.6%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고, 근무여건(연구환경 등)이 좋아서(36.5%), 임금수준이 높기 때문에(9.5%), 앞으로 외국에 정착하고자 하기 때문에(6.3%), 일자리가 많아서(1.7%), 기타(1%)순으로 나타났음. 전공계열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앞으로 외국에 정착하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비율이 공학계열에서 다른 계열보다 높음.

<표 II-36> 전공계열별, 지역별 해외 취업을 하고자 하는 가장 주된 이유

(단위: 명, %)

구분	전공계열				지역		전체
	인문	사회	공학	자연	수도권	비수도권	
일자리가 많아서	0 (0.0)	2 (4.2)	1 (0.7)	2 (3.3)	2 (1.6)	2 (1.6)	5 (1.7)
임금수준이 높기 때문에	1 (3.2)	4 (8.3)	14 (9.8)	8 (13.3)	11 (8.6)	14 (11.1)	27 (9.5)
근무여건(연구환경 등) 이 좋아서	9 (29.0)	16 (33.3)	48 (33.6)	30 (50.0)	50 (39.1)	44 (34.9)	103 (36.5)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되어서	18 (58.1)	23 (47.9)	66 (46.2)	19 (31.7)	53 (41.4)	58 (46.0)	126 (44.6)
앞으로 외국에 정착하고자 하기 때문에	1 (3.2)	2 (4.2)	14 (9.8)	1 (1.7)	9 (7.0)	8 (6.3)	18 (6.3)
기타	2 (6.5)	1 (2.1)	0 (0.0)	0 (0.0)	3 (2.3)	0 (0.0)	3 (1)
전체	31 (100.0)	48 (100.0)	143 (100.0)	60 (100.0)	128 (100.0)	126 (100.0)	282 (100.0)
	$\chi^2=30.397$ p=.011				$\chi^2=5.715$ p=.839		

석사과정 재학생들에게 박사과정 진학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954명의 학생 중에 570명(59.7%)이 박사 진학계획이 있다고 하였으며, 384명(40.3%)이 박사과정 진학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표 II-37> 박사과정 진학계획

구분	빈도	백분율
있다	570	59.7
없다	384	40.3
합계	954	100.0

석사과정 재학생들에게 희망하는 박사과정 진학 기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의 48.8%의 학생이 석사과정과 동일한 국내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며, 외국의 대학원(39.4%), 석사과정과는 다른 국내 대학원 또는 기관(11.8%)순이었음.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의 외국 대학원 박사과정 진학 희망이 이공계열보다 높고 수도권 학생들이 비수도권에 비해 외국대학원 진학희망이 두드러지게 높음.

<표 II-38> 희망하는 박사과정 진학 기관

(단위: %)

구분	전공계열				지역		전체
	인문	사회	공학	자연	수도권	비수도권	
석사과정과 동일한 국내대학원	51 (42.9)	55 (39.3)	92 (54.4)	79 (56.4)	112 (39.6)	139 (57.7)	277 (48.8)
석사과정과는 다른 국내 대학원 또는 기관	11 (9.2)	21 (15.0)	23 (13.6)	12 (8.6)	26 (9.2)	36 (14.9)	67 (11.8)
외국의 대학원	57 (47.9)	64 (45.7)	54 (32.0)	49 (35.0)	145 (51.2)	66 (27.4)	224 (39.4)
전체	119 (100.0)	140 (100.0)	169 (100.0)	140 (100.0)	283 (100.0)	241 (100.0)	568 (100.0)
$\chi^2=16.472$ p=.011					$\chi^2=32.379$ p=.000		

제4절 취업 전망

- 취업가능성 기대정도

석사과정 재학생들에게 자신의 전공분야의 석사학위자가 학위 취득 이후 3년 이내에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II-39>과 같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공분야로의 취업에 대해서는 10명중에 7명은 '취업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어 전공분야로의 취업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 비전공분야를 포함한 취업전망은 이보다 다소 어두운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사회계열과 공학계열 석사 재학생들의 전공분야 취업전망이 타 계열에 비해, 수도권 학생들이 지방학생들에 비해 전공분야 취업전망이 더 낙관적임.

<표 II-39> 3년 이내 정규직 취업가능성 기대정도

(단위: %)

구분	매우 낮다	낮은 편이다	높은 편이다	매우 높다	합계	평균
전공 분야로의 취업	53 (5.1)	242 (23.4)	503 (48.7)	234 (22.7)	1,032 (100.0)	2.89
비전공 분야를 포함한 전체 취업	66 (7.2)	358 (38.8)	405 (43.9)	93 (10.1)	922 (100.0)	2.57

<표 II-40> 계열별, 지역별 3년 이내 정규직 취업가능성 기대정도*

구분	전공계열				지역	
	인문	사회	공학	자연	수도권	비수도권
전공 분야로의 취업	2.4	2.9	3.2	2.7	3.0	2.8
비전공 분야를 포함한 전체 취업	2.2	2.7	2.6	2.6	2.6	2.5

주: *1=매우 낮다, 2=낮은 편이다, 3=높은 편이다, 4=매우 높다

- 자신 전공의 산업체 수요 예상 정도

석사과정 재학생들에게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석사 인력에 대한 산업체의 수요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체로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0.8%로 감소할 것이라는 비율 15%보다 현저히 더 높게 나타남. 3명중의 1명은 현상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전체적으로 전공의 산업체 수요는 적어도 현상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표 II-41> 자신 전공의 산업체 수요 예상 정도

구분	빈도	백분율
매우 감소할 것이다	20	1.9
대체로 감소할 것이다	134	13.0
현상 유지할 것이다	354	34.3
대체로 증가할 것이다	473	45.8
매우 증가할 것이다	52	5.0
합계	1,033	100.0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산업체 수요증가에 대하여 공학계열의 평균이 3.57로 가장 높았으며 사회계열, 자연계열, 인문계열 순으로 나타났음.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공분야 인력수요전망에 대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균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표 II-42> 전공계열별, 지역별 자신 전공의 산업체 수요 예상 정도

구분		평균*	사례수	
전공계열	인문계열	2.92	163	F=25.007 P=0.000
	사회계열	3.46	213	
	공학계열	3.57	398	
	자연계열	3.35	259	
지역	수도권	3.39	487	T=-0.148 P=0.882
	비수도권	3.40	467	

주: * 1=매우 감소할 것이다, 2=대체로 감소할 것이다, 3=현상 유지할 것이다, 4=대체로 증가할 것이다, 5=매우 증가할 것이다

석사과정 재학생들에게 학부생들의 자신의 전공분야의 5년후 취업전망이 어떨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3.5%가 대체로 밝다고 응답하였고, 4.8%는 매우 밝다고 하여 60% 가까이 취업 전망에 대해 밝게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전공계열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데, 공학계열과 사회계열 학생들이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학생들의 취업전망보다 더 낙관적으로 나타나 기초분야보다 응용분야의 학부생들의 취업전망이 더 좋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표 II-43> 자신의 전공분야의 5년 후 취업 전망

(단위: %)

구분	전공계열				지역		전체
	인문	사회	공학	자연	수도권	비수도권	
매우어둡다	10 (6.2)	3 (1.4)	5 (1.3)	11 (4.2)	13 (2.7)	13 (2.8)	29 (2.8)
대체로 어둡다	81 (50.3)	71 (33.2)	128 (32.6)	120 (46.0)	177 (36.3)	191 (41.0)	400 (38.9)
대체로 밝다	65 (40.4)	124 (57.9)	236 (60.1)	126 (48.3)	270 (55.4)	242 (51.9)	551 (53.5)
매우밝다	5 (3.1)	16 (7.5)	24 (6.1)	4 (1.5)	27 (5.5)	20 (4.3)	49 (4.8)
전체	161 (100.0)	214 (100.0)	393 (100.0)	261 (100.0)	487 (100.0)	466 (100.0)	1,029 (100.0)
	$\chi^2=49.745$ p=.000				$\chi^2=11.531$ p=.073		

제5절 소결

석사과정 재학생의 교육·직업에 대한 조사결과를 ① 석사과정 입학까지의 진로 경로, ② 석사과정 교육에 대한 견해, ③ 석사학위 취득 이후의 진로계획, ④ 취업전망의 4가지 측면에서 전공계열별(인문계열, 사회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지역별(수도권, 비수도권)로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나타나는지

를 분석하였음. 이 중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 것을 중심으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석사과정 재학생들에게 석사과정 진학동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공 분야에 대하여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3.47: 4점만점), 석사학위가 취업에 더 유리해서(2.62), 당시 직장에서 더 나은 업무 수행을 위해서(2.17)로 나타났다. 한편 석사재학생 가운데 3명중 1명은 학부 졸업이후 취업하기 어려워서 대학원을 진학하였다고 하여 대학원 진학이 취업난으로 인한 유예 과정으로 선택하였음을 보여줌.

계열별로 볼 때, 인문계열이 대졸후 취업난으로 인하여 진학한 비율이 높고, 공학계열은 교수가 되기 위해 진학한 비율이 더 높게 낮은 반면 직장에서의 승진이나 더 나은 취업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 등의 더 나은 취업이나 직무수행을 위해 진학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둘째, 석사과정 재학생들은 석사과정 진학에 필요한 정보를 주로 선배나 동료, 학사과정의 지도교수로부터 얻고 있고 대학의 진로지도 관련 기관에서 진학 정보를 얻었다는 학생은 거의 없음. 이는 대학의 진로지도 관련 기관에서 주로 취업에 관련된 사항들을 강조하면서 대학원 진학에 대한 진로정보나 진로지도 서비스가 부족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향후 대학원 진로지도에도 대학측에서도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셋째, 석사과정 재학생들에게 석사과정 생활에 대해 80%정도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세부적인 만족도를 살펴보면 교수님의 연구나 논문지도, 교수님 강의, 교육과정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졸업 후 취업이나 진학 관련 진로정보 및 상담 제공에 대해서는 좀 덜 만족스러워하는 것으로 보여 이에 관련된 학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임.

넷째, 석사과정 재학생들에게 학위 취득 이후 진로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비교적 명확한 진로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열별로 살펴봤을 때 공학계열의 경우가 다른 계열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비해 인문계열의 경우는 다른 계열보다 아직 무엇을 할 지 전혀 결정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음.

다섯째, 석사과정 재학생들이 희망하는 업종은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24.4%), 교육·연구분야(20.7%), 건설분야(10.6%)로 나타났으며, 희망직업에 대해서는 연구원, 교수, 교사, 엔지니어의 순으로 나타났음.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과 전공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90%이상의 학생들이 관련있다고 하여 학생들이 본인이 하고 싶은 직업을 어느 정도 염두해두고 전공을 결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여섯째, 석사과정 재학생들에게 자신의 전공분야의 석사학위자가 학위 취득 이후 3년 이내에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비전공분야를 포함한 전체 취업보다 전공분야로의 취업에 대해 취업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계열별로는 공학계열의 경우가 다른 계열보다 전공 분야로의 취업 가능성에 대해 좀 더 높게 나타났음.

일곱째, 석사과정 재학생들에게 학부 졸업자들의 자신의 전공분야의 5년 후 취업 전망이 어떠한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50%이상의 학생들이 대체로 밝다고 응답하였음. 전공별로 살펴보면, 사회계열과 공학계열의 경우 다른 계열보다 취업전망이 밝다고 보고 있으며, 인문계열의 경우 50% 이상의 학생들이 취업전망에 대해 어둡다고 전망하고 있어 인문계열의 취업난을 반영해 주고 있음.

제3장

박사과정 재학생의 교육·직업에 대한 조사 결과

제1절 박사과정 입학까지의 진로경로

□ 박사과정 진학동기

박사과정 재학생들에게 박사과정 진학동기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III-1>, [그림 III-1], <표 III-2>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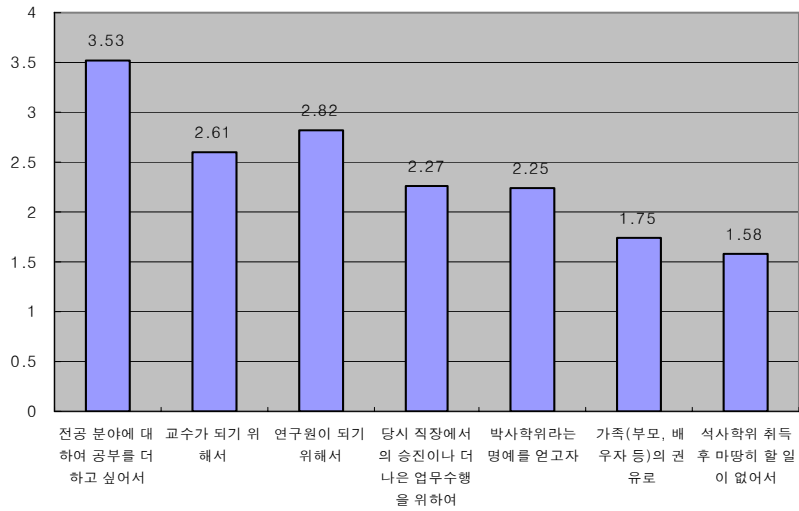
진학동기에 대해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공분야에 대하여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라고 응답한 학생의 평균이 3.53(4점만점)으로 가장 높았고,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2.82), 교수가 되기 위해서(2.61), 당시 직장에서의 승진이나 더 나은 업무수행을 위하여(2.27), 박사학위라는 명예를 얻고자(2.25), 가족(부모, 배우자 등)의 권유로(1.75), 석사학위 취득 후 마땅히 할 일이 없어서(1.58)순으로 나타났음. 이처럼, 국내 박사들의 경우, 교수가 되기 위해서 보다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라는 진학동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종전과 같이 박사과정이 대학교수로의 준비과정이라기 보다, 연구원으로서의 준비과정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줌.

<표 III-1> 박사과정 진학 동기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전공 분야에 대하여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4 (0.8)	16 (3.1)	202 (38.6)	301 (57.6)	523 (100.0)
교수가 되기 위해서	52 (10.4)	164 (32.8)	210 (42.0)	74 (14.8)	500 (100.0)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	32 (6.5)	107 (21.8)	270 (55.1)	81 (16.5)	490 (100.0)
당시 직장에서의 승진이나 더 나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151 (30.4)	125 (25.2)	155 (31.2)	66 (13.3)	497 (100.0)
박사학위라는 명예를 얻고자	114 (23.1)	175 (35.5)	173 (35.1)	31 (6.3)	493 (100.0)
가족(부모, 배우자 등)의 권유로	232 (47.0)	167 (33.8)	80 (16.2)	15 (3.0)	494 (100.0)
석사학위 취득 후 마땅히 할 일이 없어서	281 (56.8)	154 (31.1)	46 (9.3)	14 (2.8)	495 (100.0)

[그림 III-1] 박사과정 진학동기



계열별 진학동기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의 교수진학 동기가 높은 반면, 이공계열 학생들은 연구원 진학동기가 높음. 석사학위 취득이 후 마땅히 할 일이 없어서 진학한 경향이 인문계열 학생들이 더 높게 나타남.

<표 III-2> 성별, 전공계열별, 지역별 박사과정 진학동기

구분	전공계열				지역	
	인문계열 평균(N)	사회계열 평균(N)	공학계열 평균(N)	자연계열 평균(N)	수도권 평균(N)	비수도권 평균(N)
전공분야에 대하여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3.63(90)	3.48(114)	3.48(181)	3.57(138)	3.61(249)**	3.46(263)**
교수가 되기 위해서	2.78(82)*	2.70(111)*	2.47(174)*	2.62(133)*	2.62(238)	2.60(252)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	2.65(81)***	2.59(109)***	3.02(170)***	2.85(130)***	2.78(232)	2.86(249)
당시 직장에서의 승진이나 더 나은 업무수행을 위해서	1.77(82)***	2.21(108)***	2.54(173)***	2.28(134)***	2.18(236)*	2.37(251)*
박사학위라는 명예를 얻고자	2.17(82)**	2.16(107)**	2.45(172)**	2.09(132)**	2.25(235)	2.25(248)
가족(부모,배우자 등)의 권유로	1.73(82)*	1.82(107)*	1.85(173)*	1.58(132)*	1.79(236)	1.73(248)
석사학위 취득후 마땅히 할 일이 없어서	1.81(83)*	1.63(108)*	1.48(172)*	1.54(132)*	1.59(236)	1.58(249)

주: *** p<0.001, ** p<0.01, * p<0.05

1: 전혀 그렇지 않음 2: 그렇지 않음 3: 그럼 4: 매우 그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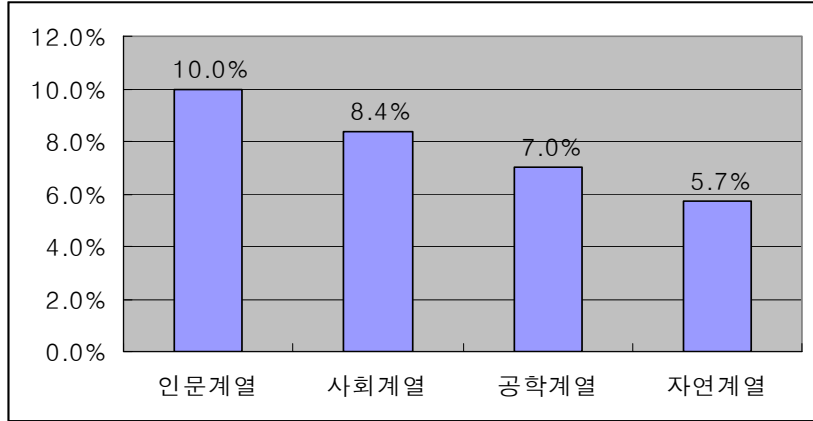
전공 변경 여부 및 전공만족도

박사과정 재학생들 중에서 전공을 변경한 경우는 7.4%이며 계열별로는 인문계열 학생들의 진로변경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자연계열의 전공변경이 가장 낮음.

<표 III-3> 박사과정 진학시 전공 변경 여부

구분	빈도	백분율
변경하지 않았음	497	(92.6)
변경했음	40	(7.4)
합계	53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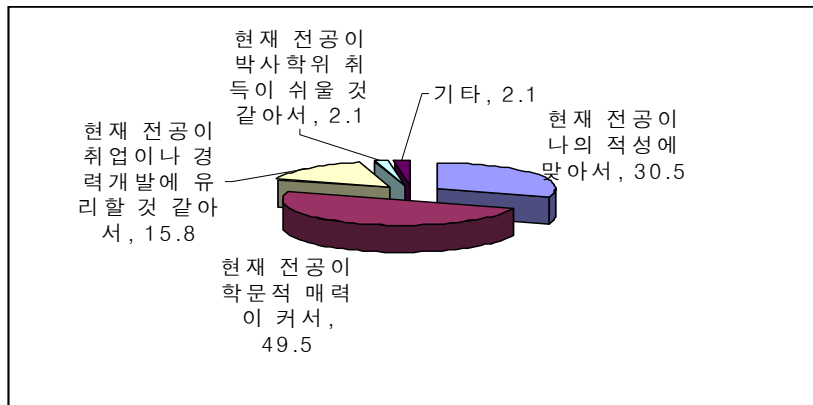
[그림 Ⅲ-2] 박사과정 중 전공변경 계열별 비교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현재 전공으로 바꾼 가장 주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재 전공이 학문적 매력이 커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50%에 이르고 있고 그다음으로 전공이 나의 적성에 맞아서, 현재 전공이 취업이나 경력개발에 유리할 것 같아서, 현재 전공이 박사학위 취득이 쉬울 것 같아서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Ⅲ-3] 현재 전공으로 바꾼 가장 주된 이유

(단위: %)



박사과정학생들의 22.1%가 박사과정 진학 당시 취업 상태였다고 대답했고 70%이상의 취업경험 박사과정생들은 담당했던 직무와 박사전공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음.

<표 III-4> 박사과정 진학당시 취업 여부

구분	빈도	백분율
취업하지 않았었음	419	(77.9)
취업상태	119	(22.1)
합계	538	(100.0)

<표 III-5> 담당했던 직무와 박사 전공과의 관련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관련없다	8	6.4
대체로 관련없다	15	12.0
대체로 관련있다	62	49.6
매우 관련있다	40	32.0
합계	125	100.0

박사과정 재학생들에게 박사과정 진학에 필요한 정보나 자문을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얻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III-6>과 같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석사과정의 지도교수라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43.7%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선배나 동료(36.4%), 진학하려고 한 박사과정 대학원의 교수(8.1%), 진학하려고 한 박사과정 대학원의 안내 정보(7.9%), 기타(3.2%), 석사과정대학의 진로지도 관련 기관(0.5%)순으로 나타났음.

<표 III-6> 박사과정 진학에 필요한 정보 획득 경로

(단위: 명, %)

구분	전공계열				지역		전체
	인문	사회	공학	자연	수도권	비수도권	
석사과정의 지도교수	28 (31.8)	51 (43.2)	94 (51.1)	59 (42.1)	96 (38.1)	136 (50.9)	232 (43.7)
선배나 동료	32 (36.4)	38 (32.2)	69 (37.5)	54 (38.6)	103 (40.9)	82 (30.7)	193 (36.4)
석사과정대학의 진로지도 관련 기관	1 (1.1)	1 (0.8)	1 (0.5)	0 (0.0)	1 (0.4)	2 (0.7)	3 (0.5)
진학하려고 한 박사과정 대학원의 교수	5 (5.7)	14 (11.9)	14 (7.6)	10 (7.1)	21 (8.3)	21 (7.9)	43 (8.1)
진학하려고 한 박사과정 대학원의 안내정보	19 (21.6)	6 (5.1)	4 (2.2)	13 (9.3)	21 (8.3)	20 (7.5)	42 (7.9)
기타	3 (3.4)	8 (6.8)	2 (1.1)	4 (2.9)	10 (4.0)	6 (2.2)	17 (3.2)
전체	88 (100.0)	118 (100.0)	184 (100.0)	140 (100.0)	252 (100.0)	267 (100.0)	530 (100.0)

박사과정 재학생들에게 박사 진학을 위해 외국유학을 고려해봤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고려해봤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55.5%를 차지하여 과반수의 학생들이 박사과정 진학시 유학을 고려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음. 석사과정생과 마찬가지로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 이공계열 학생들에 비해 외국유학을 고려한 비율이 높음.

<표 III-7> 박사 진학을 위해 외국유학 고려 여부

(단위: 명, %)

구분	전공계열				지역		전체
	인문	사회	공학	자연	수도권	비수도권	
없다	38 (41.8)	38 (31.9)	95 (50.8)	68 (48.2)	110 (42.6)	127 (47.2)	239 (44.4)
있다	53 (58.2)	81 (68.1)	92 (49.2)	73 (51.8)	148 (57.4)	142 (52.8)	299 (55.5)
계	91 (100.0)	119 (100.0)	187 (100.0)	141 (100.0)	258 (100.0)	269 (100.0)	538 (100.0)

유학을 희망한 국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전체 응답자 273명중에서 200명(73.3%)이 미국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일본이 많았

음(22명, 8.1%), 프랑스, 독일, 영국등 유럽국가 대학의 진학희망 비율은 14% 정도로 미국에 비해 선호도가 현저히 낮음을 볼 수 있음.

<표 III-8> 유학 희망 국가

(단위: 명, %)

구분	전공 계열				지역		전체
	인문계열	사회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수도권	비수도권	
미국	17	55	69	61	111	86	197(71.6%)
일본	9	1	9	3	5	16	21(7.6%)
중국	6	1	0	0	3	3	6(2.2%)
유럽	13	18	4	3	18	20	38(13.8%)
기타	3	4	3	3	6	7	13(4.7%)
전체	48	79	85	70	143	132	275(100.0%)

박사과정 재학생들에게 국내 대학원 박사과정을 결정하게 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에서도 내가 기대하는 수준의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서라고 응답한 학생의 경우가 전체의 33.5%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개인사정 때문에(29.9%), 유학비용이 부담되어서(20.6%), 기타(6.8%), 내 전공분야는 포스트닥 과정을 외국에서 밟는 것이 더 유리해서(4.5%), 원하는 외국대학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기가 어려워(4.3%)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9> 국내 대학원 박사과정을 결정하게 된 이유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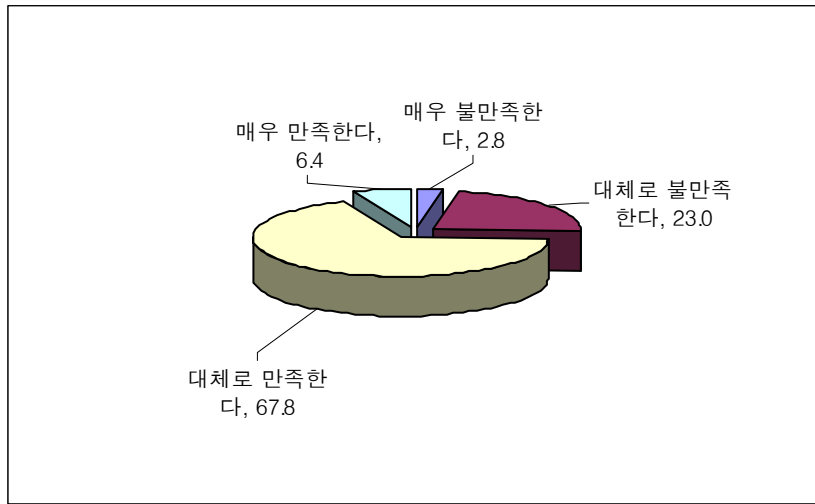
구분	전공계열				지역		전체
	인문	사회	공학	자연	수도권	비수도권	
국내에서 기대하는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37(42.0)	34(29.1)	55(29.9)	51(37.0)	84(33.5)	89(33.5)	177(33.5)
외국대학 입학허가를 받기 어려워서	2(2.3)	12(10.3)	6(3.3)	3(2.2)	12(4.8)	10(3.8)	23(4.3)
포스트 닥 과정을 외국에서 밟는 것이 더유리해서	2(2.3)	1(0.9)	6(3.3)	15(10.9)	9(3.6)	15(5.6)	24(4.5)
유학비용이 부담되어서	17(19.3)	29(24.8)	46(25.0)	17(12.3)	43(17.1)	63(23.7)	109(20.6)
개인사정때문에	23(26.1)	34(29.1)	62(33.7)	39(28.3)	78(31.1)	78(29.3)	158(29.9)
기타	7(8.0)	7(6.0)	9(4.9)	13(9.4)	25(10.0)	11(4.1)	36(6.8)
계	88(100)	117(100)	184(100)	138(100)	251(100)	266(100)	527(100)

제2절 박사과정 교육에 대한 견해

박사과정 재학생들에게 박사과정에서의 생활(수업, 실험·실습, 각종 연구 활동, 대인관계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만족하는지 조사한 결과, 4명중의 3명의 학생들은 만족한다고 반응하고 있어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편임.

[그림 III-4] 박사과정 생활만족도

(단위: %)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박사과정 진학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박사과정이 잘 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66.7%의 학생들이 대체로 그렇다고 생각하였고, 매우 그렇다고 생각한 학생들은 9.7%로 4명중의 3명은 박사과정 선택을 잘 했다고 판단하고 있음.

박사과정 재학생들에게 박사과정 교육에 대한 세부항목별로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교수님 연구나 논문 지도, 교수님 강의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장학금등 경제적 지원, 졸업 후의 진로지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10> 대학원 박사과정 교육만족도(세부사항별)

(단위: 명, %)

구분	매우 불만족한다	대체로 불만족한다	대체로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합계	평균
전공 교과목 구성과 시수	28 (5.2)	173 (32.3)	300 (56.0)	35 (6.5)	536 (100.0)	2.64
실험·실습의 양과 내용	30 (5.7)	193 (36.9)	256 (48.9)	44 (8.4)	523 (100.0)	2.60
교육과정 내용	25 (4.7)	162 (30.5)	301 (56.7)	43 (8.1)	531 (100.0)	2.68
교수님 강의	18 (3.4)	98 (18.5)	326 (61.5)	88 (16.6)	530 (100.0)	2.91
교수님 연구나 논문 지도	16 (3.0)	105 (19.8)	278 (52.5)	131 (24.7)	530 (100.0)	2.99
연구실, 실험·실습기기 등 교 육 및 연구시설	55 (10.4)	194 (36.5)	214 (40.3)	68 (12.8)	531 (100.0)	2.56
장학금 등 경제적 지원	79 (14.8)	225 (42.1)	188 (35.2)	42 (7.9)	534 (100.0)	2.36
RA나 TA 기회	34 (6.5)	200 (38.0)	243 (46.2)	49 (9.3)	526 (100.0)	2.58
졸업후 취업이나 진학 관련 진로정보 및 상담제공	88 (16.6)	249 (47.1)	166 (31.4)	26 (4.9)	529 (100.0)	2.25

전공별로 볼 때 석사과정생과 비슷하게 인문사회계열박사과정생들은 이공계열에 비해, 교수의 강의나 교육과정의 구성등 교육내용 관련해서는 만족도가 높은 반면, 실험실습의 기회, RA, TA기회, 장학금등 물질적인 지원부분에서는 만족도가 낮음. 수도권과 비수도권 학생들 간에 만족도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남.

<표 III-11> 박사과정 교육과정 만족도

구분	전공계열				지역	
	인문계열	사회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수도권	비수도권
	평균(N)	평균(N)	평균(N)	평균(N)	평균(N)	평균(N)
전공교과목 구성과 시수	2.73(91)	2.74(117)	2.59(187)	2.56(141)	2.62(256)	2.65(269)
실험·실습의 양과 내용	2.61(87)*	2.49(111)*	2.56(186)*	2.73(139)*	2.60(249)	2.59(263)
교육과정 내용	2.78(88)**	2.83(117)**	2.59(186)**	2.61(140)**	2.64(254)	2.73(266)
교수님 강의	2.99(88)*	3.06(116)*	2.85(186)*	2.82(140)*	2.85(252)*	2.98(267)*
교수님의 연구나 논문지도	3.00(88)	3.01(115)	2.98(186)	2.97(141)	2.95(253)	3.02(266)
연구실, 실험·실습기기 등 교육 및 연구시설	2.27(90)***	2.28(114)***	2.69(186)***	2.79(141)***	2.46(254)*	2.63(266)*
장학금 등 경제적 지원	2.33(89)	2.22(118)	2.39(186)	2.47(141)	2.35(256)	2.36(267)
RA나 TA기회	2.38(88)**	2.55(112)**	2.57(187)**	2.76(139)**	2.58(250)	2.58(265)
졸업 후 취업이나 진학관련 진로정보 및 상담제공	2.09(88)	2.28(115)	2.32(185)	2.21(141)	2.16(252)*	2.31(266)*
전반적인 만족도	2.74(91)	2.78(119)	2.82(185)	2.74(139)	2.79(255)	2.76(268)

박사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높게 나타나, 박사과정의 개선을 위해서 요구되는 사항을 개방형 질문으로 해서 서술하게 한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박사과정기간동안 경제적 지원이 더욱 필요하고 연구환경이나 실험실습 장비 등의 확충, 교육과정구성 및 교수의 연구지도, 진로지도의 강화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음. 또한, 연구의 행정이나 잡무부담이 많다고 지적하는 박사들이 5% 정도로 나타나 연구업무이외에 박사과정생들이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가 적지않음을 보여주고 있음.

<표 III-12> 박사 재학생 건의사항

구분	빈도	백분율	건의 내용
경제적지원	159	41.5	연구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경제적 여건
			경제적 비용과 대학원생이 공부할 수 있는 장소 제공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제도적인 뒷받침
			금전적인 지원(연구보조비), 지방대의 총체적인 지원
			기혼 박사 지원 강화
			박사과정 진학 후 연구를 함에 있어 돈이 되는 프로젝트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은 많이 하지만 정작 졸업하기가 쉽지 않아서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 해결이 필요
실험, 실습 등의 연구환경 및 자료개선 (연구실)	51	13.3	사회과학분야에 대한 지원이 이공계에 비해 현저히 뒤쳐져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망
			연구과제 부족, 경제적 어려움
			기자재 구입시 시간이 너무 걸림.
			안전시설의 확충
			대학생 위주로 편성된 기자재, 시설, 상의실로 대학원생의 기자재 활용수준이 낮음. 따라서 기자재 보충과 해외학교와의 교류 유학에 대한 기회창출.
			오래되고 낙후된 실험 기자재, 실험 및 실습 공간
교육환경 (강의실)	5	1.3	전문도서 구입, 교수님 부족
			지방대의 경우 연구지원 여건이 매우 열악
커리큘럼 (교과목 구성)	50	13.1	도서관의 도서비치 및 전자저널 이용 확대
			고가의 연구기기 구입이 상당히 어렵고 제한적이며 연구장비에 대한 투자가 국가적으로 활성화 되어야 할 것
			대학원생 연구실 배정
			먼저 대학원생들을 위한 강의실 및 연구실 지급, 논문시 혹은 연구시 자유롭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원문복사 확대 실시(현재 교수님들만 가능)
			관심분야의 교과목수 부족, 프로젝트 편성의 유연성 부족
			교과과정을 이론 및 적용분야별로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
교수 강의의 질적 내용	29	7.6	교과목 개편, 실무교육 병행, 교수님의 연구 역량 강화
			박사과정 수업을 석사과정 수업과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
			영어 강의의 증가
			전공교과목의 다양화 및 교수님 수의 확충
			연구주제의 확대
			대학원 학위논문 및 형식적인 시험제도 혁신 필요
교수 강의의 질적 내용	29	7.6	객관화, 표준화 된 논문지도(교수님별로 편차가 심하다). Thesis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가 방향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졸업위원회 구성도 일찍되어야 하고,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디스커션이 자주 일어날 수 있도록
			수업의 질이 좋아지도록 교수님들의 수업평가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 교수님들이 수업을 철저히 준비할 수 있게 해야 함
			학생들, 교수님들의 자주 발견되어지는 새로운 사실들에 대한 빠른 정보수입과 이에 대한 공부와 가르침이 필요하다
			현실과 동떨어진 연구, 대학원생의 진로와는 전혀 별개의 생각을 하시는 일부 교수님들의 사상(매우 심각), 정부시책과(공학계열 육성) 전혀 무관한 대학원내 생활
			연구원들의 깊이있는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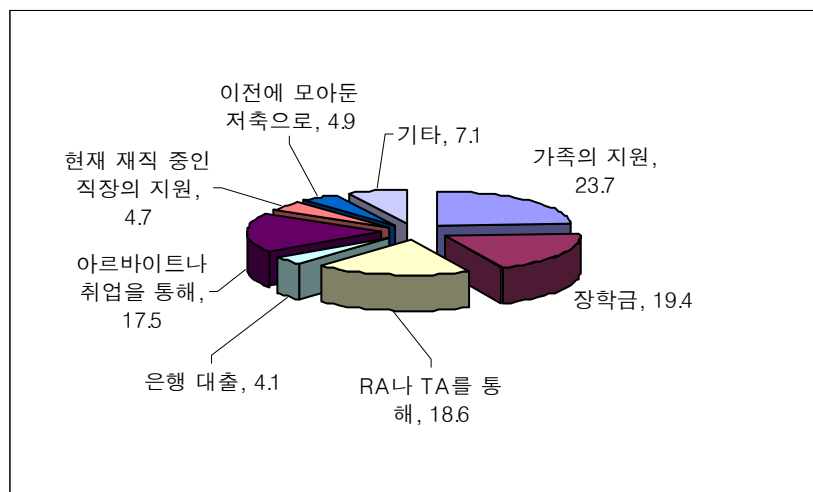
<표 계속>

구분	빈도	백분율	건의 내용
진로지도	18	4.7	박사 후 취업 관련 정보 및 상담 제공
			산학 연계를 통한 졸업후 취업준비를 할 수 있었으면 함.
			선후배간의 정보교환이 적어 진로상담에 어려움이 많음. 프로젝트에 참여해도 별다른 경력사항에 도움이 되지 않음
			박사과정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학교의 지원
			박사과정 인력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박사진학 후 취업에 관한 전문센터 설립
과중한 행정업무, 자기공부 시간 부족	21	5.5	교수가 학위과정에 있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일을 시키며, 심지어 개인적 잡무도 서슴없이 시킴
			연구과제에 따른 업무의 부담이 적지 않음. 학교나 학과차원에서 간간한 업무의 공동관리가 필요함
			연구프로젝트 및 각종 행정 제도 개선(불필요한 서류 및 과정이 과도하게 많음)
			지도교수와 박사과정 학생간의 주중관계타과, 연구진행을 위해 상호 조연자적 위치가 중요
			학업 이외의 잔무를 맡아줄 사무원 필요
			TA시간이 너무 과다함, 적절히 분배해야 함. 노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이 너무 극명하게 갈림
학생 보충, 정보 교환 및 교환학생 제도	7	1.8	연구원(석사 진학생)의 부족
			타 전공과 교류
			타대학과의 교류
			Full time 학생을 많이 뽑아야 함
복지	1	0.3	좀 더 많은 산학의 협력이 필요하며, 연구원들의 현장실습과 업체 업무의 습득으로 취업의 폭 확대
기타	22	5.7	대외(기업, 해외국내 연구소)기관과의 연계 활동
			병역문제해결
			상대적 높은 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요구함으로 박사과정 학생에게 너무 부담됨
			입학정원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연구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뽑아 소수정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필요
			파트타임과 풀타임 구분
연구지도 제도 강화	11	2.9	연구 및 논문 작성을 위한 프로그램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독창적인 연구가 힘들
			어쩔 수 없는 사안이지만 실적을 위주로 사람이나 연구실을 평가하는 제도의 개선은 필요함.
외국대학과의 교류 확대	9	2.3	다양한 해외 세미나 및 학회 참석 비용 제공 확대
			외국 대학과 활발한 교류
			외국인 학생 유치
			해외 석학들과 만나서 토의할 기회를 확대해야 함
합계	383	100.0	

박사과정 재학생들의 교육경비 재원은 가족의 지원이 23.7%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장학금(19.4%), RA나 TA를 통해(18.6%),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통해(17.5%), 기타(7.1%), 이전에 모아둔 저축으로(4.9%),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의 지원(4.7%), 은행 대출(4.1%)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5] 경비조달방법(1순위)

(단위: %)



교육경비 재원마련을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 사회계열은 가족의 지원이나 자신의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통한 지원등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이공계열의 경우 RA, TA, 장학금 등 학교 지원을 통한 재원 마련이 높음.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가족의 지원(27.8%), 장학금(22.7%)이 높은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자신의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통한 부담이 다소 높게 나타남.

<표 III-13> 전공계열별, 지역별 경비조달방법

(단위: 명, %)

구분	전공 계열				지역		전체
	인문	사회	공학	자연	수도권	비수도권	
가족의 지원	32 (35.2)	38 (32.2)	34 (18.5)	22 (15.8)	71 (27.8)	54 (20.3)	126 (24.0)
장학금	10 (11.0)	15 (12.7)	37 (20.1)	41 (29.5)	58 (22.7)	43 (16.2)	101 (19.2)
RA나 TA를 통해	8 (8.8)	16 (13.6)	43 (23.4)	32 (23.0)	43 (16.9)	54 (20.3)	97 (18.4)
은행 대출	5 (5.5)	3 (2.5)	11 (6.0)	3 (2.2)	8 (3.1)	14 (5.3)	22 (4.2)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통해	26 (28.6)	17 (14.4)	31 (16.8)	19 (13.7)	37 (14.5)	54 (20.3)	92 (17.5)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의 지원	5 (5.5)	12 (10.2)	4 (2.2)	4 (2.9)	8 (3.1)	15 (5.6)	24 (4.6)
이전에 모아둔 저축으로	3 (3.3)	10 (8.5)	8 (4.3)	5 (3.6)	15 (5.9)	10 (3.8)	26 (4.9)
기타	2 (2.2)	7 (5.9)	16 (8.7)	13 (9.4)	15 (5.9)	22 (8.3)	38 (7.2)
전체	91 (100.0)	118 (100.0)	184 (100.0)	139 (100.0)	255 (100.0)	266 (100.0)	526 (100.0)
				$\chi^2=70.250, p=0.000$		$\chi^2=23.020, p=0.060$	

박사과정 재학생들에게 2006년도 1학기에 장학금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53.4%를 차지하였고,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46.6%를 차지하였음. 자연계열 학생들의 장학금 수혜비율이 높음.

<표 III-14> 장학금 수혜여부

구분	빈도(명)	백분율(%)
받지 않았다	250	46.6
받았다	286	53.4
합계	536	100.0

<표 III-15> 계열별 장학금 수혜여부

(단위: 명, %)

구분	인문계	사회과학계	공학계	자연과학계	전체
받지 않았다	49 (53.8)	54 (45.4)	96 (51.9)	51 (36.2)	250 (46.6)
받았다	42 (46.2)	65 (54.6)	89 (48.1)	90 (63.8)	286 (53.4)
계	91 (100.0)	119 (100.0)	185 (100.0)	141 (100.0)	536 (100.0)

2006년도 1학기에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에게 어떤 장학금을 받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교내 장학금을 받았다는 학생이 90.1%로 나타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교외 장학금을 받았다는 학생은 9.9%에 불과하였음.

<표 III-16> 장학금 종류

구분	빈도(명)	백분율(%)
교내장학금	247	90.1
교외장학금	27	9.9
합계	274	100.0

프로젝트 참여

- 참여 상황

박사과정 재학생들은 현재 지도교수(또는 소속대학의 교수)의 연구 프로젝트(외부 기관의 연구비 지원하에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56.2%가 참여한다고 반응하고 있고, 참여하고 있으나 참여기회가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31.0%, 참여 기회는 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12.8%를 차지하였음. 계열별, 지역별로 살펴볼 때, 석사과정생의 반응과 유사하게 인문사회계열이나 비수도권 학생들이 참여의 기회가 현저하게 적음.

<표 III-17> 프로젝트 참여 상황

(단위: 명, %)

구분	전공 계열				지역		전체
	인문	사회	공학	자연	수도권	비수도권	
참여하고 있다	38 (23.8)	48 (23.0)	302 (76.1)	185 (72.8)	266 (54.6)	268 (58.8)	573 (56.2)
참여기회는 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23 (14.4)	58 (27.8)	38 (9.6)	12 (4.7)	56 (11.5)	62 (13.6)	131 (12.8)
참여하고 싶으나 참여기회가 없다	99 (61.9)	103 (49.3)	57 (14.4)	57 (22.4)	165 (33.9)	126 (27.6)	316 (31.0)
계	160 (100.0)	209 (100.0)	397 (100.0)	254 (100.0)	487 (100.0)	456 (100.0)	1,020 (100.0)
	$\chi^2=277.579$ p=.000				$\chi^2=18.300$ p=.001		

- 연구 프로젝트 참여개수

박사과정 재학생들에게 현재 몇 개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응답한 총 301명의 학생 중에 1개라고 응답한 학생이 151명(50.1%)으로 가장 많았고, 2개라고 한 학생이 105명(34.8%), 3개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45명(14.9%)으로 나타났다. 이공계열 학생들의 프로젝트 참여개수가 더 많음.

<표 III-18> 연구 프로젝트 참여개수

(단위: 명, %)

구분	전공 계열				지역		전체
	인문계열	사회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수도권	비수도권	
1개	21	26	59	45	77	71	151(50.1)
2개	2	6	61	36	49	53	105(34.8)
3개 이상	0	2	25	18	18	27	45(14.9)
계	23	34	145	99	144	151	301(100)
평균	1.09	1.16	1.77	1.78	1.57	1.73	1.65

- 연구 프로젝트 참여 수당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박사과정학생들에게, 월평균 어느 정도 수당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응답자 285명중에서 139명(48.7%)이 21~50만원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았고, 51~100만원 94명(32.9%), 20만원 이하 48명(16.8%), 100만원 초과 4명(1.4%)으로 나타났다.

<표 III-19> 연구 프로젝트 참여 수당

(단위: 명, %)

구분	전공 계열				지역		전체
	인문계열	사회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수도권	비수도권	
20만원이하	1	5	22	20	23	24	48(16.8)
21~50만원	6	19	72	42	63	75	139(48.7)
51~100만원	14	13	41	26	57	36	94(32.9)
100만원 초과	0	1	2	1	1	2	4(1.4)
계	21	38	137	89	144	137	285(100.0)
	$\chi^2=14.835$ p=.096				$\chi^2=7.011$ p=.320		

- 연구 프로젝트 참여 자격

박사과정 재학생들은 연구프로젝트에 주로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였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75.7%를 차지하였고,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 학생이 전체의 20.4%를 차지하였으며 기타자격으로 참여한 경우가 3.7%로 나타났다.

<표 III-20> 연구 프로젝트 참여 자격

(단위: 명, %)

구분	전공 계열				지역		전체
	인문계열	사회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수도권	비수도권	
공동연구원	1(4.2)	4(9.5)	37(24.5)	23(22.8)	36(23.5)	24(15.2)	65(20.4)
연구보조원	20(83.3)	33(78.6)	113(74.8)	75(74.3)	110(71.9)	129(81.6)	241(75.7)
기타	3(12.5)	5(11.9)	1(0.7)	3(3.0)	7(4.6)	5(3.2)	12(3.7)
전체	24(100.0)	42(100.0)	151(100.0)	101(100.0)	153(100.0)	158(100.0)	318(100)
	$\chi^2=23.567$ p=.001				$\chi^2=4.475$ p=.346		

- 참여 만족도

박사과정 재학생에게 지도교수(또는 소속대학의 교수)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만족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III-21>과 같음. 만족도 전체 평균은 2.96으로 나타났는데, 대체로 만족한다가 전체의 70.0%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고, 매우 만족한다가 13.7%로 80%이상의 재학생들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21> 프로젝트 참여 만족도

구분	빈도	백분율
매우 불만족한다	6	1.8
대체로 불만족한다	47	14.0
대체로 만족한다	237	70.5
매우 만족한다	46	13.7
합계	336	100.0
평균	2.96	

연구 프로젝트 참여에 만족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만족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공지식 습득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50.1%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25.9%),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네트워킹 기회를 갖게 된다(20.1%), 기타(2.8%), 지도교수와 의 인간관계를 쌓을 기회가 된다(1.1%)순으로 나타났음.

- 연구 프로젝트 참여시 불만족하는 이유

박사과정 재학생에게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불만족 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잡무가 너무 많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36.1%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시간을 과도하게 투자하여야 한다(28.7%), 보수가 너무 작다(24.2%), 기타(6.4%), 전공과 무관하다(4.6%)순으로 나타났음.

전공계열별로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지역별로 볼 때, 수도권 학생들이 잡무가 너무 많다고 불만하는 비율이 높음.

<표 III-22> 불만족 이유

(단위: 명, %)

구분	전공계열				지역		전체
	인문계열	사회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수도권	비수도권	
시간을 과도하게 투자하여야 한다	3 (30.0)	11 (50.0)	10 (23.8)	7 (20.6)	14 (26.9)	17 (30.9)	31 (28.7)
전공과 무관하다	0 (0.0)	1 (4.5)	3 (7.1)	1 (2.9)	4 (7.7)	1 (1.8)	5 (4.6)
보수가 너무 작다	3 (30.0)	4 (18.2)	10 (23.8)	9 (26.5)	12 (23.1)	14 (25.5)	26 (24.2)
잡무가 너무 많다	2 (20.0)	4 (18.2)	17 (40.5)	16 (47.1)	21 (40.4)	18 (32.7)	39 (36.1)
기타	2 (20.0)	2 (9.1)	2 (4.8)	1 (2.9)	1 (1.9)	5 (9.1)	7 (6.4)
전체	10 (100.0)	22 (100.0)	42 (100.0)	34 (100.0)	52 (100.0)	55 (100.0)	108 (100.0)
	$\chi^2=14.331$ p=.280				$\chi^2=19.319$ p=.013		

외국인 유학생

- 외국인 유학생과 수학한 경험 여부

박사과정 재학 중에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수학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44.5%이었고,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55.5%로 나타나 경험이 없는 학생이 조금 더 많았음.

-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내 대학원 박사과정에 미치는 영향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학생이 464명으로 전체의 44.7%를 차지하였고, 별 다른 영향이 없다 375명(36.1%), 잘 모르겠다 121명(11.6%), 부정적이다 79명(7.6%)으로 나타남.

박사과정 재학생들에게 우리나라 대학원 발전을 위하여 외국인 학생들에게 국내 유학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필요한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53.6%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19.3%로 70%이상의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제3절 박사학위 취득 이후의 진로 계획

박사과정 재학생들은 학위 취득 이후 진로 계획에 대해 구체적이지는 않으나 비교적 명확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535명중 212명으로 전체의 39.6%를 차지하였으며, 좀 막연하지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은 갖고 있다가 35.3%,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을 갖고 있다가 15.1%, 아직 무엇을 할 지 전혀 결정하지 못하였다가 9.9%를 차지하였음. 이처럼 대부분의 박사과정생 가운데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은 아니지만 대체적인 방향성과 계획을 갖고 있음. 계열별로 볼 때,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 무엇을 할 지 결정하지 못했다는 비율이 높아, 인문사회계열 박사들의 취업난을 고려할 때, 이 결과는 인문사회계열 박사과정생들에 대한 진로지도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음.

<표 III-23> 학위 이후 진로에 대한 계획

(단위: 명, %)

구분	전공계열				지역		전체
	인문	사회	공학	자연	수도권	비수도권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을 갖고 있다	9 (10.0)	21.0 (17.8)	29 (15.6)	22 (15.6)	41 (16.0)	39 (14.6)	81 (15.1)
구체적이지는 않으나 비교적 명확한 계획을 갖고 있다	28 (31.1)	42.0 (35.6)	87 (46.8)	55 (39.0)	89 (34.8)	117 (43.7)	212 (39.6)
좀 막연하지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은 갖고 있다	39 (43.3)	37.0 (31.4)	55 (29.6)	58 (41.1)	96 (37.5)	90 (33.6)	189 (35.3)
아직 무엇을 할 지 전혀 결정하지 못하였다	14 (15.6)	18.0 (15.3)	15 (8.1)	6 (4.3)	30 (11.7)	22 (8.2)	53 (9.9)
전체	90 (100.0)	118.0 (100.0)	186 (100.0)	141 (100.0)	256 (100.0)	268 (100.0)	535 (100.0)
	$\chi^2=23.448$ p=.005				$\chi^2=7.870$ p=.248		

박사과정 학생들은 학위 취득 후에 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전체의 54.2%를 차지하였고, 포스트닥과정을 하고자 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45.8%를 차지하였음. 자연계열 과정생들의 61%는 포스트 닥 과정을 계획하고 있어 다른 계열에 비해 현저히 높음.

<표 III-24> 진로 계획 방향

(단위: 명, %)

구분	계열별				지역별		전체
	인문계열	사회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수도권	비수도권	
취업활동을 하고자 한다	40.0 (52.6)	59 (59.0)	111 (64.2)	52 (38.8)	115 (50.7)	143 (58.1)	262 (54.2)
포스트닥과정을 하고자 한다	36.0 (47.4)	41 (41.0)	62 (35.8)	82 (61.2)	112 (49.3)	103 (41.9)	221 (45.8)
전체	76.0 (100.0)	100 (100.0)	173 (100.0)	134 (100.0)	227 (100.0)	246 (100.0)	483 (100.0)
	$\chi^2=20.714$ p=.000				$\chi^2=3.328$ p=.189		

박사과정 재학생들에게 희망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보면 연구개발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65.1%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교육(22.8%), 컨설팅 및 자문(5.2%), 행정활동(3.9%), 기타(2.9%)순으로 나타났음. 예상할 수 있듯, 인문사회계열, 특히 인문계열의 경우 교육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사회계열의 경우, 타계열에 비해 컨설팅이나 자문에 종사하고자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III-25> 희망 업무

(단위: 명, %)

구분	계열별				지역별		전체
	인문계열	사회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수도권	비수도권	
교육	30.0(55.6)	15(22.1)	14(11.6)	11(17.2)	28(20.6)	40(24.1)	70(22.8)
연구개발	22.0(40.7)	35(51.5)	97(80.2)	46(71.9)	94(69.1)	104(62.7)	200(65.1)
컨설팅 및 자문	0.0(0.0)	9(13.2)	4(3.3)	3(4.7)	6(4.4)	10(6.0)	16(5.2)
행정활동	1.0(1.9)	5(7.4)	3(2.5)	3(4.7)	4(2.9)	8(4.8)	12(3.9)
기타	1.0(1.9)	4(5.9)	3(2.5)	1(1.6)	4(2.9)	4(2.4)	9(2.9)
전체	54.0(100.0)	68(100.0)	121(100.0)	64(100.0)	136(100.0)	166(100.0)	307(100.0)
	$\chi^2=62.726$ p=.000				$\chi^2=11.377$ p=.181		

박사과정 재학생들에게 취업을 희망하는 기관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 정부출연(산하)연구소라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31.5%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4년제 대학(28.3%), 국내 대기업(12.5%), 민간기업체 연구소(5.6%), 외국계 기업(4.6%), 중앙 또는 지방 행정부서(3.3%), 대학연구소(2.9%), 개인사업(창업)(2.6%), 지자체 출연(산하)연구소(2.3%), 기타(9%), 2년제 대학(1.6%), 초중등학교(0.9%)순으로 나타났음.

<표 III-26> 취업 희망 기관 유형(계열별, 지역별, 전체)

(단위: 명, %)

구분	계열별				지역별		전체
	인문계열	사회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수도권	비수도권	
4년제 대학	33.0 (62.3)	24 (35.8)	18 (15.0)	11 (17.5)	38 (28.1)	45 (27.6)	86 (28.3)
2년제 대학	0.0 (0.0)	1 (1.5)	3 (2.5)	1 (1.6)	1 (0.7)	4 (2.5)	5 (1.6)
초중등학교	0.0 (0.0)	0 (0.0)	0 (0.0)	3 (4.8)	1 (0.7)	2 (1.2)	3 (0.9)
정부출연(산하)연구소	4.0 (7.5)	18 (26.9)	51 (42.5)	21 (33.3)	37 (27.4)	56 (34.4)	94 (31.5)
지자체출연(산하)연구소	4.0 (7.5)	3 (4.5)	0 (0.0)	0 (0.0)	4 (3.0)	3 (1.8)	7 (2.3)
대학연구소	5.0 (9.4)	2 (3.0)	2 (1.7)	0 (0.0)	6 (4.4)	3 (1.8)	9 (2.9)
민간기업체 연구소	1.0 (1.9)	4 (6.0)	10 (8.3)	2 (3.2)	10 (7.4)	7 (4.3)	17 (5.6)
국내 대기업	0.0 (0.0)	4 (6.0)	22 (18.3)	12 (19.0)	21 (15.6)	17 (10.4)	38 (12.5)
국내 중소기업	0.0 (0.0)	1 (1.5)	2 (1.7)	2 (3.2)	1 (0.7)	3 (1.8)	5 (1.6)
외국계 기업	0.0 (0.0)	2 (3.0)	7 (5.8)	5 (7.9)	8 (5.9)	6 (3.7)	14 (4.6)
중앙 또는 지방 행정부서	0.0 (0.0)	4 (6.0)	2 (1.7)	4 (6.3)	5 (3.7)	5 (3.1)	10 (3.3)
개인사업(창업)	2.0 (3.8)	3 (4.5)	1 (0.8)	2 (3.2)	0 (0.0)	8 (4.9)	8 (2.6)
기타	4.0 (7.5)	1 (1.5)	2 (1.7)	0 (0.0)	3 (2.2)	4 (2.5)	7 (2.3)
전체	53 (100.0)	67 (100.0)	120 (100.0)	63 (100.0)	135 (100.0)	163 (100.0)	303 (100.0)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희망 직무와 전공과의 관련성에 대해 90% 이상의 학생들이 관련있다고 반응하고 있어 대부분의 박사과정생들은 향후 자신의 전공을 활용한 부문에서 직업활동을 하고자 함을 볼 수 있음.

<표 III-27> 희망 직무와 전공과의 관련성

(단위: 명, %)

구분	계열별				지역별		전체
	인문계열	사회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수도권	비수도권	
전혀관련없다	0(0.0)	0(0.0)	3(2.5)	0(0.0)	2(1.5)	1(0.6)	3(1.0)
대체로 관련없다	0(0.0)	5(7.0)	4(3.3)	2(3.2)	5(3.6)	6(3.6)	11(3.6)
대체로 관련있다	19(35.8)	33(46.5)	62(50.8)	38(60.3)	59(43.1)	91(54.5)	152(49.2)
매우 관련있다	34(64.2)	33(46.5)	53(43.4)	23(36.5)	71(51.8)	69(41.3)	143(46.3)
전체	53(100)	71(100)	122(100)	63(100)	137(100)	167(100)	309(100.0)
	$\chi^2=17.803$ p=.038				$\chi^2=5.741$ p=.453		

박사과정 재학생들에게 박사학위를 취득 한 후 취업하여 어느 정도 연봉을 받길 바라는지 조사한 결과, 3000~3499만원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38.2%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3000만원 이하를 희망하는 학생들도 30%를 상회하고 있음. 박사학위 취득 후 취업하여 받기를 희망하는 연봉 평균은 3178만원이었음.

<표 III-28> 희망연봉

(단위: 명, %)

구분	빈도(명)	백분율(%)
2000만원 미만	7	1.0
2000~2499만원	90	13.1
2500~2999만원	122	17.8
3000~3499만원	262	38.2
3500~3999만원	89	13.0
4000~4999만원	78	11.4
5000~5999만원	25	3.6
6000만원 이상	12	1.8
합계	685	100.0
평균	3178만원	

전공계열별 희망 연봉에 대해 살펴보면, 사회계열의 경우 평균 4621만원으로 응답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연계열 4542만원, 공학계열 4429만원, 인문계열 4078만원순으로 나타났음.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4887만원, 비수도권의 경우 4077만원으로 나타나 수도권 대학에 재학하는 박사과정 학생들이 희망하는 연봉수준이 더 높았음.

<표 III-29> 전공계열별, 지역별 희망 연봉

구분		평균(만원)	사례수	
전공계열	인문계열	4078	41	F=0.534 P=0.659
	사회계열	4621	57	
	공학계열	4429	114	
	자연계열	4542	56	
지역	수도권	4887	115	F=4.694 P=0.010
	비수도권	4077	149	
	기타	5125	4	
	합계	4440	268	

박사과정 재학생들에게 박사학위 취득 이후 해외 취업 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적으로 전혀 없다고 응답한 학생의 경우가 전체의 60.1%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가능하면 해외에서 취업하고 싶다가 37.2%,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가 2.3%를 나타냈음. 이공계열 학생들의 해외 취업희망 의사가 높는데, 특히 자연계열 학생들의 해외취업 의사가 높았음.

<표 III-30> 박사학위 취득 이후 해외 취업 계획 여부

(단위: 명, %)

구분	계열별				지역별		전체
	인문	사회	공학	자연	수도권	비수도권	
계획을 갖고있다	1(1.9)	2(2.9)	3(2.5)	1(1.6)	4(3.0)	3(1.8)	7(2.3)
계획 없으나 가능하면 해외 취업 희망	14(26.9)	21(30.4)	45(38.1)	32(51.6)	48(36.4)	63(38.4)	112(37.2)
전혀 없다	37(71.2)	46(66.7)	70(59.3)	29(46.8)	8(60.6)	98(59.8)	182(60.4)
전체	52(100)	69(100)	118(100)	62(100)	132(100)	164(100)	301(100)
	$\chi^2=9.476$ p=.149				$\chi^2=0.948$ p=.918		

박사과정 재학생들 중에서 해외에 취업할 계획이 있거나,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해외에 취업하고 싶다고 응답한 학생들에게 어느 국가로 가서 취업하고 싶은지 조사한 결과, 미국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114명중 73명으로 64.0%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일본(6.1%), 독일(5.3%), 영국(3.5%)순으로 나타났음.

해외에서 취업할 계획을 갖고 있거나 해외에서 취업을 하고 싶다는 학생들에게 해외에서 취업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되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41.8%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근무여건(연구환경 등)이 좋아서(40.9%), 임금수준이 높기 때문에(6.5%), 앞으로 외국에 정착하고자 하기 때문(4.9%), 자녀들 교육 때문에(2.4%), 기타(2.4%), 일자리가 많아서(0.8%)순으로 나타났음.

<표 III-31> 해외 취업하고자 하는 가장 주된 이유(계열별, 지역별, 전체)

(단위: 명, %)

구분	전공계열				지역		전체
	인문	사회	공학	자연	수도권	비수도권	
일자리가 많아서	0(0.0)	0(0.0)	1(2.0)	0(0.0)	1(1.9)	0(0.0)	1(0.8)
임금수준이 높기 때문에	0(0.0)	1(4.2)	6(12.2)	1(2.9)	3(5.7)	5(7.4)	8(6.5)
근무여건(연구환경등)이 좋아서	4(26.7)	8(33.3)	18(36.7)	20(58.8)	26(49.1)	23(33.8)	50(40.9)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되어서	9(60.0)	12(50.0)	21(42.9)	9(26.5)	18(34.0)	33(48.5)	51(41.8)
자녀들 교육때문에	0(0.0)	0(0.0)	1(2.0)	2(5.9)	0(0.0)	3(4.4)	3(2.4)
앞으로 외국에 정착하고자 하기 때문	1(6.7)	3(12.5)	2(4.1)	0(0.0)	3(5.7)	3(4.4)	6(4.9)
기타	1(6.7)	0(0.0)	0(0.0)	2(5.9)	2(3.8)	1(1.5)	3(2.4)
전체	15(100)	24(100)	49(100)	34(100)	53(100)	68(100)	122(100)
	$\chi^2=24.976$ p=.126				$\chi^2=9.168$ p=.688		

박사과정 재학생들에게 향후 포스트 닥 과정을 밝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62.8%를 차지하였으며 없다고 한 경우는 37.1%로 나타났음.

<표 III-32> 포스닥 과정 계획 여부(계열별, 지역별, 전체)

(단위: 명, %)

구분	전공계열				지역		전체
	인문	사회	공학	자연	수도권	비수도권	
있다	50.0 (63.3)	55 (57.3)	99 (57.2)	97 (74.0)	147 (65.0)	146 (60.1)	301 (62.8)
없다	29.0 (36.7)	41 (42.7)	74 (42.8)	34 (26.0)	79 (35.0)	97 (39.9)	178 (37.1)
전체	79.0 (100.0)	96 (100.0)	173 (100.0)	131 (100.0)	226 (100.0)	243 (100.0)	479 (100.0)
$\chi^2=10.652$ p=.014					$\chi^2=1.497$ p=.473		

포스트 닥 과정을 밟을 계획이 있다고 한 학생들은, 외국의 기관(대학, 연구소, 기업체 등)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78.9%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박사학위 과정과 동일한 국내대학원이 11.6%, 박사학위 과정과는 다른 국내 대학원 또는 기관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9.3%로 나타났음.

<표 III-33> 포스닥 과정 희망 기관

(단위: 명, %)

구분	전공계열				지역		전체
	인문	사회	공학	자연	수도권	비수도권	
박사학위과정과 동일한 국내대학원	13 (25.5)	8 (14.0)	7 (6.9)	8 (8.0)	13 (8.6)	22 (14.8)	36 (11.6)
박사학위과정과는 다른 국내 대학원 또는 기관	6 (11.8)	3 (5.3)	8 (7.9)	12 (12.0)	13 (8.6)	16 (10.7)	29 (9.3)
외국의기관(대학, 연구소, 기업체 등)	32 (62.7)	46 (80.7)	86 (85.1)	80 (80.0)	126 (82.9)	111 (74.5)	244 (78.9)
전체	51 (100.0)	57 (100.0)	101 (100.0)	100 (100.0)	152 (100.0)	149 (100.0)	309 (100)
$\chi^2=16.260$ p=.012					$\chi^2=5.030$ p=.284		

포스트 닥 과정을 밟고 싶어하는 학생들 중에서 외국의 기관에서 밟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 어느 국가에서 포스트 닥 과정을 밟고 싶은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이 전체의 68.7%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일본이 5.0%, 영국 3.3%, 독일 2.7%로 나타났음.

외국의 기관에서 포스트 닥 과정을 밟고 싶다고 한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왜 외국에서 포스트 닥 과정을 밟고자 하는지에 대한 주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과 연구 등 연수 환경이 더 좋아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42.6%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내 전공분야는 향후 취업이나 승진 시 외국에서의 포스트 닥이 유리해서(31.5%), 지도 받고 싶은 교수(연구자)가 외국에 있어서(11.1%), 내가 참여하기를 원하는 프로젝트가 외국기관에 있기 때문에(10.7%), 앞으로 외국에 정착하고자 해서(1.5%), 기타(1.5%), 외국 포스트닥 보수가 국내보다 높기 때문에(1.1%)순으로 나타났음.

<표 III-34> 외국에서 포스트 닥 과정을 하고 싶은 이유

(단위: 명, %)

구분	전공				지역		전체
	인문	사회	공학	자연	수도권	비수도권	
내가 참여하기를 원하는 프로젝트가 외국기관에 있기 때문에	5 (15.2)	6 (12.8)	5 (5.6)	11 (13.4)	17 (13.5)	9 (7.7)	27 (10.7)
지도받고싶은 교수(연구자)가 외국에 있어서	5 (15.2)	4 (8.5)	11 (12.4)	8 (9.8)	14 (11.1)	14 (12.0)	28 (11.1)
교육과 연구 등 연수 환경이 더 좋아서	14 (42.4)	18 (38.3)	39 (43.8)	36 (43.9)	42 (33.3)	60 (51.3)	107 (42.6)
내전공분야는향후취업이나승진시외국에서의포스트닥이유리해서	7 (21.2)	16 (34.0)	30 (33.7)	25 (30.5)	47 (37.3)	30 (25.6)	78 (31)
외국포스트닥 보수가 국내보다 높기 때문에	0 (0.0)	2 (4.3)	1 (1.1)	0 (0.0)	2 (1.6)	1 (0.9)	3 (1.1)
앞으로 외국에 정착하고자 해서	0 (0.0)	1 (2.1)	2 (2.2)	1 (1.2)	0 (0.0)	3 (2.6)	4 (1.5)
기타	2 (6.1)	0 (0.0)	1 (1.1)	1 (1.2)	4 (3.2)	0 (0.0)	4 (1.5)
전체	33 (100.0)	47 (100.0)	89 (100.0)	82 (100.0)	126 (100.0)	117 (100.0)	251 (100.0)
	$\chi^2=17.218$ p=.508				$\chi^2=20.560$ p=.057		

해외에서의 포스트 닥 종료 이후 그 국가에서 계속 취업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로 귀국하여 취업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57.3%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포스트 닥 한 국가에서 취업 계획이 있다고 한 경우가 36.7%를 차지하였으며, 그 국가는 아니지만 다른 외국에서 취업하고자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5.9%로 나타났다. 사회계열과 공학계열 학생들이 포스트 닥 이후에도 해외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계획을 더 많이 갖고 있음.

<표 III-35> 해외에서의 포스트 닥 종료 이후 그 국가에서의 취업계획 여부

(단위: 명, %)

구분	전공계열				지역		전체
	인문	사회	공학	자연	수도권	비수도권	
취업계획있음	10 (29.4)	22 (46.8)	37 (41.6)	24 (28.9)	45 (35.4)	45 (38.1)	93 (36.7)
그 나라는 아니지만 다른 외국에서 취업하고자 한다	1 (2.9)	1 (2.1)	4 (4.5)	9 (10.8)	7 (5.5)	7 (5.9)	15 (5.9)
우리 나라로 귀국하여 취업할 것이다	23 (67.6)	24 (51.1)	48 (53.9)	50 (60.2)	75 (59.1)	66 (55.9)	145 (57.3)
전체	34 (100.0)	47 (100.0)	89 (100.0)	83 (100.0)	127 (100.0)	118 (100.0)	253 (100.0)
	$\chi^2=10.344$ p=.111				$\chi^2=0.468$ p=.977		

해외에 취업하고자 하는 가장 주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되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40.1%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근무여건(연구 환경 등)이 좋아서(39.2%), 앞으로 외국에 정착하고자 하기 때문에(7.1%), 임금수준이 높기 때문에(5.3%), 일자리가 많아서(3.5%), 기타(2.6%)순으로 나타났다.

제4절 취업 전망

박사과정 재학생들에게 자신의 전공분야의 박사학위자가 학위 취득이후 3년 이내에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III-36>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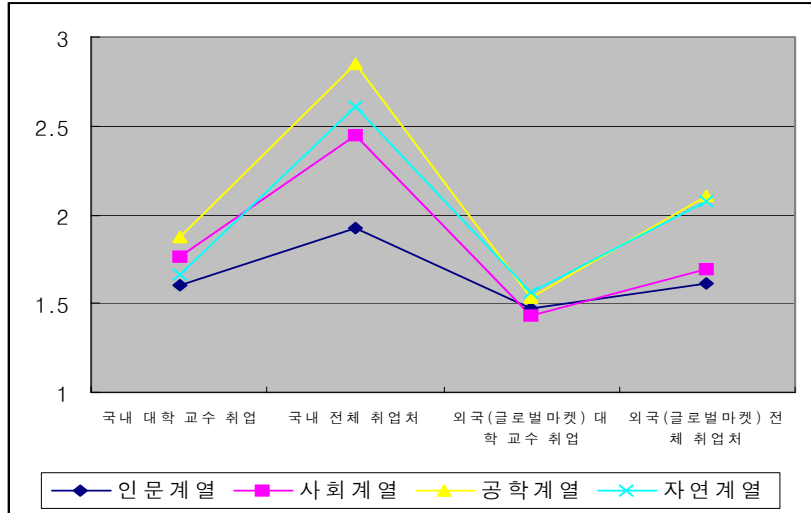
국내 전체 취업처에 취업 가능성 기대정도가 평균 2.55로 가장 높았고, 외국(글로벌마켓) 전체 취업처(1.93), 국내 대학 교수 취업(1.75), 외국(글로벌마켓) 대학 교수 취업(1.54)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정규직 취업가능성 기대정도를 낮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III-36> 3년 이내 박사 정규직 취업가능성 기대정도

구분	매우 낮다	낮은 편이다	높은 편이다	매우 높다	합계	평균
국내 대학 교수 취업	183 (38.5)	235 (49.5)	49 (10.3)	8 (1.7)	475 (100.0)	1.75
국내 전체 취업처	47 (9.7)	173 (35.7)	215 (44.4)	49 (10.1)	484 (100.0)	2.55
외국(글로벌마켓) 대학 교수 취업	271 (57.9)	158 (33.8)	37 (7.9)	2 (0.4)	468 (100.0)	1.51
외국(글로벌마켓) 전체 취업처	143 (30.5)	225 (48.0)	92 (19.6)	9 (1.9)	469 (100.0)	1.93

계열별 차이를 볼 수 있는데, 특히 국내 취업가능성에 있어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볼 수 있음. 국내에서는 교수직이건 일반 취업처인건 공학계열의 취업전망이 뚜렷하게 높고, 인문계열의 취업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글로벌 마켓에서 이공계열 박사들의 취업 가능성이 인문사회계열보다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그림 Ⅲ-6> 계열별 박사 정규직 취업가능성 기대정도



박사과정 재학생들에게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박사 인력에 대한 대학이나 기업, 연구소의 수요가 향후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체로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39.0%로 가장 많았으며, 현상 유지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7.7%로 전체 평균은 3.3으로 나타나 향후 수요에 대해서 보통 이상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Ⅲ-37> 자신 전공의 수요 예상 정도

구분	빈도(명)	백분율(%)
매우 감소할 것이다	12	2.3
대체로 감소할 것이다	83	15.6
현상유지할 것이다	201	37.7
대체로 증가할 것이다	208	39.0
매우 증가할 것이다	29	5.4
합계	533	100.0

박사과정 재학생들에게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박사인력에 대한 산업체의 수요에 대해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자연계열의 평균이 3.37로 가장 높았으며 공학계열(3.37), 사회계열(3.37), 인문계열(2.87)순으로 나타났음.

<표 III-38> 전공계열별, 자신 전공의 산업체 수요 예상 정도

구분		평균	사례수	F=9.181 P=0.000
전공계열	인문계열	2.87	89	
	사회계열	3.37	118	
	공학계열	3.37	187	
	자연계열	3.41	139	
	합계	3.30	533	

주: *1=매우 낮다, 2=낮은 편이다, 3=높은 편이다, 4=매우 높다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자신의 전공분야가 5년 후 학부 졸업생의 취업전망이 어떠한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보면 대체로 밝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52.6%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매우 밝다고 응답한 경우가 6.0%로 나타나 60%정도의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분야 취업전망을 밝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39> 자신의 전공분야의 5년 후 취업 전망

구분	빈도(명)	백분율(%)
매우어둡다	18	3.5
대체로 어둡다	198	38.0
대체로 밝다	274	52.6
매우밝다	31	6.0
합계	521	100.0

박사과정 재학생들에게 자신의 전공분야의 학부생들의 5년 후 취업전망이 어떠한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공학계열의 경우가 평균 2.78로 나타나 가장 높았고 자연계열(2.61), 사회계열(2.53), 인문계열(2.38)순으로 나타나 이공계열의 취업전망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 있

음.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평균 2.63, 비수도권의 경우가 2.59로 나타나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음.

<표 III-40> 전공계열별, 지역별 자신의 전공분야의 5년 후 취업 전망

구분		평균	사례수	
전공계열	인문계열	2.38	88	F=8.729 P=0.000
	사회계열	2.53	114	
	공학계열	2.78	183	
	자연계열	2.61	136	
	합계	2.61	521	

주: * 1=매우 어렵다, 2=대체로 어렵다, 3=대체로 밝다, 4=매우 밝다

제5절 소결

박사과정 재학생의 교육·직업에 대한 조사결과를 ① 박사과정 입학까지의 진로 경로, ② 박사과정 교육에 대한 견해, ③ 박사학위 취득 이후의 진로계획, ④ 취업전망의 4가지 측면에서 전공계열별(인문계열, 사회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지역별(수도권, 비수도권)로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음. 이 중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 것을 중심으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박사과정 재학생들에게 박사과정 진학동기를 조사한 결과 전공 분야에 대해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3.53),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2.82), 교수가 되기 위해서(2.61)순으로 나타나 석사과정 재학생들의 조사결과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음.

둘째, 박사과정 진학에 필요한 정보를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얻었는지 조사한 결과 석사과정의 지도교수(43.7%), 선배나 동료(36.4%)로 나타났으며 석사과정 대학의 진로지도 관련 기관으로부터 진학 정보를 얻었다는 학생은 전

체의 0.5%에 지나지 않았음.

셋째, 박사과정 재학생들에게 박사과정의 세부항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교수님의 연구나 논문 지도에 대한 평균이 2.99로 가장 높았고, 교수님 강의(2.91), 교육과정 내용(2.68), 전공 교과목 구성과 시수(2.64)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3개 항목 모두 공학계열이 다른 계열보다 좀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넷째, 박사과정 재학생들은 학위 취득 이후 진로 계획에 대해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비교적 명확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전공별로 보면 공학·자연계열의 경우가 인문·사회계열의 학생보다 좀 더 구체적인 진로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다섯째, 박사과정 재학생들에게 희망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보면 연구개발(65.1%), 교육(22.8%), 컨설팅 및 자문(5.2%)순으로 나타났으며 전공계열별로 보면, 인문계열의 경우 50%이상의 학생들이 희망하는 업무로 교육을 꼽았으며 공학·자연계열의 학생들인 경우 70%이상이 희망하는 업무로 연구개발을 꼽았음. 희망하는 직무와 전공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90%이상의 학생들이 전공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음.

여섯째, 박사학위 취득 후 포스트 닥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 62.8%의 학생이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들 중에 어디에서 포스트 닥 과정을 밟고 싶은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80%정도의 학생들이 외국의 기관(대학, 연구소, 기업체 등)에서 하고 싶다고 하였으며 포스트 닥 과정을 희망하는 국가로 미국, 일본, 영국을 꼽고 있었음.

일곱째, 박사과정 재학생들에게 자신의 전공분야의 박사학위자가 학위 취득 이후 3년 이내에 정규직으로 취업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 국내 전체 취업처(2.55)가 가장 높았으며, 외국 전체 취업처(1.93), 국내 대학 교수 취업(1.75), 외국 대학 교수 취업(1.51)순으로 나타나 국내이건 해외이건 대학교수로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음. 계열별로 볼 때, 인문계열의 취업전망이 가장 어두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공학계열의 취업전망을 가장 낙관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제4장 결론: 요약 및 제언

제1절 요약

석·박사 재학생 조사는 총 91개 대학 2,676명(석사 1,746명, 박사 93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반사항, 대학원입학, 대학원교육, 학위 취득 후 진로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된 조사도구를 사용하여 2006년 5월 18일~6월 2일까지 조사를 수행하였음.

조사 방법은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한국직업능력개발에서 각 대학 학과로 설문지를 발송하고, 각 학과에서는 석·박사과정 재학생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학과에서 조사결과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 회송하는 절차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음.

석·박사과정 재학생의 교육·직업에 대한 조사는 ① 석·박사과정 입학까지의 진로경로, ② 석·박사과정 교육에 대한 견해, ③ 석·박사 취득 이후의 진로계획, ④ 취업 전망의 4가지 측면에서 석사과정·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인식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분석하였음.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음.

진로 경로

- 석사과정 재학생들은 석사학위가 취업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당시 직장에서도 더 나은 업무 수행을 위해서 진학하였다는 동기가 강하게 나타남. 곧, 취업지향적 동기가 강한 것으로 나타남. 박사과정 재학생들은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 교수가 되기 위해서 순으로 나타나 연구개발 및 교육전문가를 위한 준비과정으로 진학하는 동기가 두드러짐.
- 석사과정 학생들은 석사과정 진학에 필요한 정보를 선배나 동료로부터 얻었다는 학생들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학사과정의 지도교수로부터 얻었다는 학생이 많았으며 박사과정 학생들은 박사과정 진학에 필요한 정보를 석사과정의 지도교수로부터 얻었다는 학생들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선배나 동료로 나타나 석사과정 재학생들과 박사과정 재학생들 간에 조금 다른 현상을 보였음. 그러나 대학의 진로지도 관련 기관에서 진학정보를 얻었다는 학생은 석사과정 재학생, 박사과정 재학생 공히 극소수에 불과함. 석박사과정생들의 진로가 보다 다양해짐을 고려할 때, 대학당국에서는 석박사 학생들을 위한 진로지도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재학생들의 학교의 진로지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점을 이와 같은 결론을 뒷받침해주고 있음.

대학원 교육에 대한 견해

- 석사과정 재학생들은 석사과정 생활에 대해 80%정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세부적으로 교수님의 연구나 논문지도, 교수님 강의, 교육과정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졸업 후 취업이나 진학 관련 진로정보 및 상담 제공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학위 취득 이후의 진로 계획

- 석사과정 재학생들은 학위 취득 이후 진로계획에 대해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비교적 명확한 진로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공계열별로 보면 공학계열의 경우가 다른 계열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인문계열의 경우는 다른 계열학생들에 비해 진로계획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음. 박사과정 재학생들도 석사과정 재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위 취득 이후 진로계획에 대해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비교적 명확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음. 전공계열별로는 공학·자연계열의 경우가 인문·사회계열의 학생들보다 좀 더 구체적인 진로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취업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인문사회계열, 특히 인문계열 학생들의 이와 같은 불투명한 진로계획은 이들 학생 대상의 진로지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해줌.
- 석사과정 재학생들은 희망하는 업종은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 교육·연구분야, 건설분야순으로 나타났으며 희망직업에 대해서는 연구원, 교수, 교사, 엔지니어 순으로 나타남.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과 전공과의 관련성에 대해 90%이상의 학생들이 관련있다고 응답하여 자신의 전공을 활용한 직업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음. 박사과정 학생들은 희망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연구개발, 교육, 컨설팅 및 자문 순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희망하는 직무와 전공과의 관련성에 대해 90%이상의 학생들이 전공과 관련이 있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공과 관련된 업무를 희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취업 전망

- 석사과정 재학생들은 자신의 전공분야의 석사학위자가 학위 취득이후 3년 이내에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전공분야로의 취업에

대해 취업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 편이었고, 전공계열별로는 공학 계열의 경우가 다른 계열보다 전공분야로의 취업 가능성에 대해 좀 더 높게 나타났음. 박사과정의 재학생들은 자신의 전공분야의 박사학위자가 학위 취득 이후 3년 이내에 정규직으로 취업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다소 어둡게 전망하고 있음. 특히 교수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게 보고 있으며, 국내 전체 취업처로의 취업 가능성이 다소 높게 나타남. 자신의 전공 분야의 산업체 향후 수요에 대해서는 인문계열이 다른 계열보다 낮게 나타나며, 취업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문계열의 경우가 낮게 나타나 인문계 박사의 취업난을 시사해줌.

제2절 제언

향후 대학원 재학생 조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음.

□ 조사방법의 확대

-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는 석·박사 재학생 조사는 2004년도에 첫 번째 조사를 실시하였고, 2006년도에 두 번째 조사를 실시하였음. 2004년도 조사보다 2006년도 조사 시 샘플 수가 확대되고 조사내용이 보완되었다고 할 수 있음. 향후 석·박사 재학생 조사에서 우편조사 이외에도 석·박사 재학생 집단 인터뷰, 심층면접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질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현재까지 일반대학원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향후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으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조사결과의 활용

석·박사 재학생 조사는 석·박사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유일한 조사임. 기초 정책 자료가 미흡한 대학원 제도발전 정책과 고급인력정책에 이 조사결과와 자료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석·박사 재학생 조사는 올해가 2번째 조사로 현재 2개 년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음. 이것이 계속 축적됨과 동시에 연도별로 어떠한 추이를 보이는지 추후 보고서에 서는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조사 데이터를 공개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분석하여 대학원에서의 고급인적자원 양성과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대학원 교육과정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수집한 자료를 각 대학별로, 각 학과별로 분석하여 해당대학 해당학과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분석 결과에 따라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진로지도와 관련된 자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본 석박사 재학생 조사와 석박사 졸업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원 학과의 특성과 향후 전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학원 세계」의 내용을 질적으로 양적으로 개선하여 대학원 진로지도를 위한 안내서로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부 록>

- <부록 1> 조사도구: 석사과정 재학생용 대학원
교육·직업에 관한 조사
- <부록 2> 조사도구: 박사과정 재학생용 대학원
교육·직업에 관한 조사

<부록 1> 조사도구: 석사과정 재학생용 대학원 교육·직업에 관한 조사

석사과정 재학생용
대학원 재학생의 교육·직업에 관한 조사
<p>안녕하십니까?</p> <p>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과 전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1997년에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p> <p>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 「미래의 직업세계」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격년 주기로 석·박사 재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대학원 재학생들의 진학동기, 대학원 교육과정의 경험, 졸업이후 진로계획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p> <p>본 조사의 결과는 우리 나라 고급인적자원 정책 개발과 대학원 진학 희망자를 위한 진로지도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하의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될 것이며, 연구 이외에 어떤 용도로도 쓰이지 않을 것입니다.</p> <p>설문지 응답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은 우리 나라 대학원 교육의 발전을 위해 활용될 것입니다.</p> <p>감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06년 5월</p> <p style="text-align: right;">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김장호</p> <p style="text-align: right;">연구진: 진미석 선임연구위원 윤형한 연구원 김나라 연구원</p>
<p>연락처: (135-766)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41-2 금하빌딩 7층</p> <p>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진로정보센터</p> <p>TEL: 02-3485-5305 FAX: 02-3485-5329</p> <p>E-mail: nrkim@krivet.re.kr</p>

I. 다음은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 당시 귀하의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께서 석사과정에 진학하게 된 동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마다 동의하시는 정도를 해당번호에 ✓표하여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1. 전공 분야에 대하여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4	3	2	1
1-2. 석사학위가 취업에 더 유리해서	4	3	2	1
1-3. 교수가 되기 위해서	4	3	2	1
1-4. 당시 직장에서의 승진을 위해서	4	3	2	1
1-5. 당시 직장에서 더 나은 업무수행을 위해서	4	3	2	1
1-6. 학부졸업 이후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가 어려워서	4	3	2	1
1-7. 가족(부모, 형제 등)의 권유로	4	3	2	1

2. 귀하께서는 학사과정과 동일한 전공으로 석사과정에 진학하셨습니다가?

- ___ ① 그렇다
___ ② 아니다(전공을 바꾸었다)

↳ 2-1. 현재 전공으로 바꾼 가장 주된 이유를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___ ① 현재 전공이 나의 적성에 맞아서
___ ② 현재 전공의 학문적 매력 커서
___ ③ 현재 전공이 취업이나 경력개발에 유리할 것 같아서
___ ④ 현재 전공이 석사학위 취득이 쉬울 것 같아서
___ ⑤ 기타 _____

3. 귀하께서는 학사과정과 동일한 대학의 석사과정에 진학하셨습니다가?

- ___ ① 그렇다
___ ② 아니다(대학을 변경하였다)

↳ 3-1. 대학을 변경한 가장 주된 이유를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___ ① 현 대학원의 교육여건이 좋아서
___ ② 현 대학원의 교수진이 좋아서
___ ③ 현 대학원의 명성이 높아서
___ ④ 현 대학원이 입학하기가 쉬워서
___ ⑤ 현 대학원에 내가 원하는 전공이 개설되어 있어서
___ ⑥ 현 대학원의 학비가 저렴해서
___ ⑦ 현 대학원의 장학금 지원이 많아서
___ ⑧ 기타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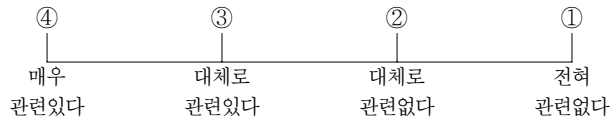
4. 귀하께서는 석사과정에 진학할 당시 취업한 상태였습니까?

- ① 아니다
- ② 그렇다

↳ 4-1. 당시 취업상황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정규직 풀타임으로 취업하고 있었다
- ② 비정규직(임시직·계약직) 풀타임으로 취업하고 있었다
- ③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가끔씩 일하고 있었다

4-2. 취업 당시 귀하께서 담당하셨던 일은 현재 석사과정의 전공과 어느 정도로 관련이 있습니까?



5. 귀하께서는 석사과정 진학에 필요한 정보나 자문을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구하셨는지 가장 주된 것을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학사과정의 지도교수
- ② 선배나 동료
- ③ 학부를 마친 대학의 진로지도 관련 기관(☞ 취업정보센터, 학생생활연구소 등)
- ④ 진학하려고 한 석사과정 대학원의 교수
- ⑤ 진학하려고 한 석사과정 대학원의 안내정보(☞ 대학원 홈페이지, 안내책자 및 팸플릿 등)
- ⑥ 기타 _____

6. 귀하께서는 석사과정 진학을 위해 외국유학을 고려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없다
- ②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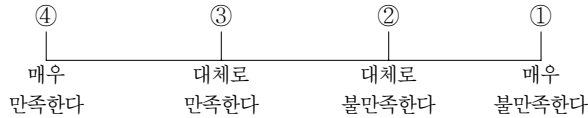
↳ 6-1. 어느 나라에 유학하고자 고려하셨습니까? 국가명: _____

7. 귀하께서 국내 대학원 석사과정을 결정하게 된 가장 주된 이유를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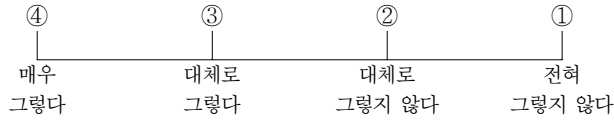
- ① 국내에서도 내가 기대하는 수준의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서
- ② 원하는 외국대학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기가 어려워서
- ③ 내 전공분야는 박사과정에 유학가는 것이 더 유리해서
- ④ 유학비용이 부담되어서
- ⑤ 개인사정(가족, 직장 등) 때문에
- ⑥ 기타 _____

II. 다음은 귀하의 대학원 석사과정 교육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입니다.

8. 귀하께서는 석사과정에서의 생활(수업, 실험·실습, 각종 연구 활동, 대인관계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로 만족하십니까?



9. 귀하께서는 석사과정 진학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석사과정 진학이 잘 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 대학원 석사과정 교육에 대한 다음의 세부 항목에 대하여 귀하께서 만족하시는 정도를 해당 번호에 ✓표하여 주십시오.

	매우 만족한다	대체로 만족한다	대체로 불만족한다	매우 불만족한다
10-1. 전공 교과목 구성과 시수	4	3	2	1
10-2. 실험실습의 양과 내용	4	3	2	1
10-3. 교육과정 내용	4	3	2	1
10-4. 교수님 강의	4	3	2	1
10-5. 교수님의 연구나 논문 지도	4	3	2	1
10-6. 연구실, 실험실습기기 등 교육 및 연구시설	4	3	2	1
10-7. 장학금 등 경제적 지원	4	3	2	1
10-8. RA나 TA 기회	4	3	2	1
10-9. 졸업후 취업이나 진학 관련 진로정보 및 상담제공	4	3	2	1

11. 귀하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대학원 석사과정 교육의 발전을 위해 개선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점에 대하여 적어 주십시오.

12. 귀하께서는 2006년도 1학기에 장학금을 받으셨습니까?

- ① 받지 않았다
- ② 받았다

↳ 12-1. 어떤 종류의 장학금을 받으셨습니까?

- ① 교내 장학금(수업료 또는 기성회비 면제 포함)
- ② 교외 장학금

↳ 장학금 수여 기관명 : _____

12-2. 2006년도 1학기에 귀하께서 실질적으로 수령한 장학금의 액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_____만원

13. 귀하께서 등록금과 생활비 등 대학원 석사과정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어떻게 마련하고 계
시는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순서대로 두 가지만 보기에서 골라 주십시오.

제1순위 _____, 제 2순위 _____

【 보기 】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가족(부모, 형제 또는 배우자 등)의 지원 | <input type="checkbox"/> ② 장학금 |
| <input type="checkbox"/> ③ RA 또는 TA를 통해 | <input type="checkbox"/> ④ 은행 대출 |
| <input type="checkbox"/> ⑤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통해서 | <input type="checkbox"/> ⑥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의 지원 |
| <input type="checkbox"/> ⑦ 이전에 모아둔 저축으로 | <input type="checkbox"/> ⑧ 기타 _____ |

14. 귀하께서는 현재 지도교수(또는 소속대학의 교수)의 연구 프로젝트(외부 기관의 연구비 지원
하에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 ① 참여하고 있다 ⇨ 15번 문항으로
- ② 참여기회는 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 20번 문항으로
- ③ 참여하고 싶으나 참여 기회가 없다

15. 귀하께서는 현재 몇 개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_____ 개

16. 귀하께서 보통 한 개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월 평균 어느 정도의 수당을 받으시
니까? _____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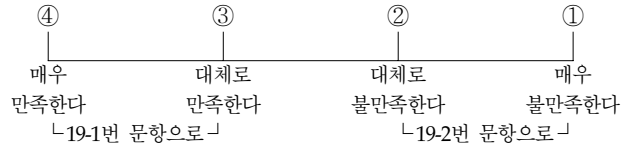
17. 귀하께서는 이들 연구 프로젝트에 주로 어떠한 자격으로 참여하고 계십니까?

- ① 공동연구원
- ② 연구보조원
- ③ 기타 _____

18. 귀하께서는 BK 사업의 지원을 받고 계십니까?

___① 그렇다 ___② 그렇지 않다

19. 귀하께서는 지도교수(또는 소속대학의 교수)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만족하십니까?



19-1. 연구 프로젝트 참여에 만족하신다면, 다음 중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_① 전공지식 습득에 도움이 된다
- ___②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 ___③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네트워킹 기회를 갖게 된다
- ___④ 지도교수와의 인간관계를 쌓을 기회가 된다
- ___⑤ 기타 _____

19-2. 연구 프로젝트 참여에 불만족하신다면, 다음 중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_① 시간을 과도하게 투자하여야 한다
- ___② 전공과 무관하다
- ___③ 보수가 너무 작다
- ___④ 잡무가 너무 많다
- ___⑤ 기타 _____

20. 귀하께서는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석사 인력에 대한 산업체의 수요가 향후 어떠한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21. 귀하께서는 석사과정 재학 중에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수학한 경험이 있습니까?

___① 있다 ___② 없다

22. 외국인 유학생들은 국내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활동, 학생활동, 학문발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① 긍정적이다 ___② 별 다른 영향이 없다 ___③ 부정적이다
- ___④ 잘 모르겠다

23. 귀하께서는 우리 나라 대학원 발전을 위하여 외국인 학생들에게 국내에서 유학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① 매우 필요하다 ___② 필요한 편이다
___③ 필요하지 않다 ___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___⑤ 잘 모르겠다

III. 다음은 석사학위 취득이후의 진로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24. 귀하께서는 석사학위 취득 직후의 진로에 대한 계획을 명확하게 갖고 계십니까?

- ___①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을 갖고 있다
___② 구체적이지는 않으나 비교적 명확한 계획을 갖고 있다] ⇨ 25번 문항으로
___③ 좀 막연하지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은 갖고 있다
___④ 아직 무엇을 할 지 전혀 결정하지 못하였다 ⇨ 33번 문항으로

25. 귀하의 석사학위 취득 직후의 진로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 ___① 취업을 하고자 한다
___② 취업과 박사과정 진학을 병행하고자 한다] ⇨ 26번 문항으로
___③ 박사과정으로 진학하고자 한다 ⇨ 31번 문항으로

26. 귀하께서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직후에 어떤 직업을 가지려고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단, 현재 직장을 유지하려고 하시는 분께서는 지금의 직장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26-1. 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느 업종에 종사하고 싶으신지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___① 경영·회계·사무 분야 ___② 금융·보험 분야 ___③ 교육·연구 분야
___④ 법률 분야 ___⑤ 보건·의료 분야 ___⑥ 사회복지·종교 분야
___⑦ 문화·예술·디자인 분야 ___⑧ 운전·운송 분야 ___⑨ 건설 분야
___⑩ 기계 분야 ___⑪ 금속·재료 분야 ___⑫ 화학·화공 분야
___⑬ 섬유·의복 분야 ___⑭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
___⑮ 식품가공 분야 ___⑯ 환경 분야 ___⑰ 농림어업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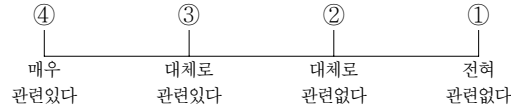
26-2. 귀하께서 희망하시는 직업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직업명: _____
(예 자동차 영업원, 컴퓨터하드웨어엔지니어, 웹프로그래머, 학원강사 등)

26-3. 그 직업에서 귀하께서 수행하고 싶은 주요 업무와 분야를 적어 주십시오.

업무와 분야: _____
(예 홍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싶다. 대리점에서 자동차를 판매하고 싶다. 쇼핑몰 웹사이트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다. 등)

27. 귀하께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후에 희망하시는 직업은 귀하의 현재 전공과 어느 정도로 관련이 있습니까?



28. 귀하께서는 석사학위 취득 이후 취업하여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고자 하십니까?

(세금포함) 연봉 약 _____ 만원

29. 귀하께서 취업하고자 희망하는 직장의 형태가 무엇인지 다음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정부기관 ② 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 정부투자기관, 공사)
- ③ 초·중등학교 ④ 대학교 ⑤ 사회교육기관(학원 등)
- ⑥ 민간 대기업 ⑦ 민간 중소기업 ⑧ 외국계 기업
- ⑨ 비영리 민간기구 ⑩ 자영업 ⑪ 기타

30. 귀하께서는 석사학위 취득이후 해외에 가서 취업할 계획이 있습니까?

- ①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
- ②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가능하면 해외에서 취업하고 싶다] ⇨ 30-1번 문항으로
- ③ 전혀 없다 ⇨ 31번 문항으로

30-1. 어느 국가로 가서 취업하고 싶습니까? 국가명: _____

30-2. 해외에 취업하고자 하는 가장 주된 이유를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일자리가 많아서
- ② 임금수준이 높기 때문에
- ③ 근무여건(연구 환경 등)이 좋아서
- ④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되어서
- ⑤ 앞으로 외국에 정착하고자 하기 때문에
- ⑥ 기타 _____

31. 귀하께서는 향후 박사과정에 진학할 계획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32번 문항으로 ② 없다 ⇨ 33번 문항으로

32. 귀하께서는 박사과정을 어디로 진학하고자 하십니까?

- ① 석사학위과정과 동일한 국내 대학원] ⇨ 33번 문항으로
- ② 석사학위과정과는 다른 국내 대학원
- ③ 외국의 대학원

↳ 32-1. 어떤 나라에 유학하고 싶습니까? 국가명: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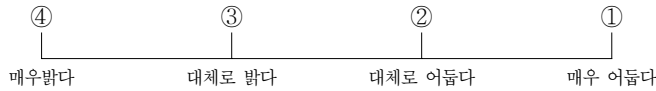
32-2. 외국에 유학하고자 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교수진과 교육과정 등 교육의 질이 더 좋아서
- ② 국내에서는 내가 원하는 전공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서
- ③ 교육 및 연구 환경이 더 좋아서
- ④ 내 전공분야에서는 향후 취업이나 승진시 외국학위가 더 유리해서
- ⑤ 장학금, RA 등 학비 지원이 많아서
- ⑥ 앞으로 외국에 정착하고자 해서
- ⑦ 기타_____

33. 귀하께서는 귀하의 전공분야의 석사학위자가 학위 취득 이후 3년 이내에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해당번호에 ✓표하여 주십시오.

	매우 높다	높은 편이다	낮은 편이다	매우 낮다
33-1. 전공 분야로의 취업	4	3	2	1
33-2. 비전공 분야를 포함한 전체 취업	4	3	2	1

34. 전공 분야의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귀하의 전공분야는 5년 후(2011년 경) 학부 졸업생의 취업전망이 어떠할 것으로 예상되십니까?



※ 다음은 통계분석을 위한 일반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성별 : ① 남자 ② 여자
2. 출생년도: 19__년
3. 거주지: ① 서울경기인천 ② 충청강원 ③ 영남 ④ 호남제주
4. 귀하께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신 대학의 유형을 골라 주십시오.

<p>【 보기 】</p> <p>① 수도권 국공립대학 ② 수도권 사립대학 ③ 비수도권 국공립대학 ④ 비수도권 사립대학 ⑤ 외국대학 ⑥ 기타_____</p>
--

5. 학부 졸업년도: _____년 _____월, 석사과정 입학년도: _____년 _____월

6. 귀하의 전공분야를 아래의 보기에서 선택하여 주십시오.

6-1. 학부전공: _____ , 6-2. 석사전공: _____

전공분야 [보기]

- | | | | |
|---------------------|-------------|-----------|---------------------|
| 1) 국어·국문학 | 2) 일본어·문학 | 3) 중국어·문학 | 4) 영어·문학 |
| 5) 유럽어·문학 | 6) 심리학 | 7) 역사·철학 | 8) 경영학 9) 경제학 |
| 10) 법학 | 11) 사회학 | 12) 행정학 | 13) 교육학 14) 건축·설비공학 |
| 15) 토목공학 | 16) 기계공학 | 17) 전기공학 | 18) 전자공학 |
| 19) 전산학·컴퓨터공학 | 20) 정보·통신공학 | 21) 화학공학 | |
| 22) 생명과학(생물학, 생명공학) | 23) 화학 | 24) 환경학 | 25) 수학 |
| 26) 물리·과학 | 27) 의학 | 28) 약학 | 29) 디자인학 |
| 30) 기타(_____) | | | |

6-3. 석사과정의 세부전공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예 기계역학, 생물물리학).

세부전공: _____

7. 결혼 여부: __① 결혼 __② 미혼 __③ 기타_____

8. 자녀수: __① 없음 __② 1명 __③ 2명 __④ 3명 이상

9. 현재 귀하의 취업상황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__① 풀타임 정규직 __② 풀타임 비정규직 __③ 파트타임 __④ 미취업

10. 부모의 교육수준

부: __① 중졸 이하 __② 고졸 __③ 전문대졸 __④ 대졸 __⑤ 대학원졸 이상

모: __① 중졸 이하 __② 고졸 __③ 전문대졸 __④ 대졸 __⑤ 대학원졸 이상

11. 귀하의 학부 졸업평점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__① A+ __② A __③ B+ __④ B __⑤ C+ __⑥ C __⑦ D 이하

※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록 2> 조사도구: 박사과정 재학생용 대학원 교육·직업에 관한 조사

박사과정 재학생용
대학원 재학생의 교육·직업에 관한 조사
<p>안녕하십니까?</p> <p>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과 전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1997년에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p> <p>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 「미래의 직업세계」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격년 주기로 석·박사 재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대학원 재학생들의 진학동기, 대학원 교육과정의 경험, 졸업이후 진로계획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p> <p>본 조사의 결과는 우리 나라 고급인적자원 정책 개발과 대학원 진학 희망자를 위한 진로지도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하의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될 것이며, 연구 이외에 어떤 용도로도 쓰이지 않을 것입니다.</p> <p>설문지 응답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은 우리 나라 대학원 교육의 발전을 위해 활용될 것입니다.</p> <p>감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06년 5월</p> <p style="text-align: right;">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김장호</p> <p style="text-align: right;">연구진: 진미석 선임연구위원 윤형한 연구원 김나라 연구원</p>
<p>연락처: (135-766)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41-2 금하빌딩 7층</p> <p>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진로정보센터</p> <p>TEL: 02-3485-5305 FAX: 02-3485-5329</p> <p>E-mail: nrkim@krivet.re.kr</p>

I. 다음은 대학원 박사과정 입학 당시 귀하의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께서 박사과정에 진학하게 된 동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마다 동의하시는 정도를 해당번호에 표하여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1. 전공 분야에 대하여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4	3	2	1
1-2. 교수가 되기 위해서	4	3	2	1
1-3.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	4	3	2	1
1-4. 당시 직장에서의 승진이나 더 나은 업무수행을 위해서	4	3	2	1
1-5. 박사학위라는 명예를 얻고자	4	3	2	1
1-6. 가족(부모, 배우자 등)의 권유로	4	3	2	1
1-7. 석사학위 취득 후 마땅히 할 일이 없어서	4	3	2	1

2. 귀하께서는 석사과정과 동일한 전공으로 박사과정에 진학하셨습니다가?

- ① 그렇다
 ② 아니다(전공을 바꾸었다)

↳ 2-1. 현재 전공으로 바꾼 가장 주된 이유를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현재 전공이 나의 적성에 맞아서
 ② 현재 전공의 학문적 매력이 커서
 ③ 현재 전공이 취업이나 경력개발에 유리할 것 같아서
 ④ 현재 전공이 박사학위 취득이 쉬울 것 같아서
 ⑤ 기타_____

3. 귀하께서는 석사과정과 동일한 대학의 박사과정에 진학하셨습니다가?

- ① 그렇다
 ② 아니다(대학을 변경하였다)

↳ 3-1. 대학을 변경한 가장 주된 이유를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현 대학원의 교육여건이 좋아서
 ② 현 대학원의 교수진이 좋아서
 ③ 현 대학원의 명성이 높아서
 ④ 현 대학원이 입학하기가 쉬워서
 ⑤ 현 대학원에 내가 원하는 전공이 개설되어 있어서
 ⑥ 현 대학원의 학비가 저렴해서
 ⑦ 현 대학원의 장학금 지원이 많아서
 ⑧ 기타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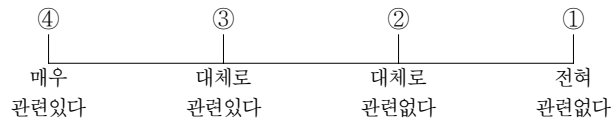
4. 귀하께서는 박사과정에 진학할 당시 취업한 상태였습니까?

- ① 아니다
 ② 그렇다

↳ 4-1. 당시 취업상황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정규직 풀타임으로 취업하고 있었다
 ② 비정규직(임시직·계약직) 풀타임으로 취업하고 있었다
 ③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가끔씩 일하고 있었다

4-2. 취업 당시 귀하께서 담당하셨던 일은 현재 박사과정의 전공과 어느 정도로 관련이 있습니까?



5. 귀하께서는 박사과정 진학에 필요한 정보나 자문을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구하셨는지 가장 주된 것을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석사과정의 지도교수
 ② 선배나 동료
 ③ 석사과정 대학의 진로지도 관련 기관(☞ 취업정보센터, 학생생활연구소 등)
 ④ 진학하려고 한 박사과정 대학원의 교수
 ⑤ 진학하려고 한 박사과정 대학원의 안내정보(☞ 대학원 홈페이지, 안내책자 및 팸플릿 등)
 ⑥ 기타 _____

6. 귀하께서는 박사과정 진학을 위해 외국유학을 고려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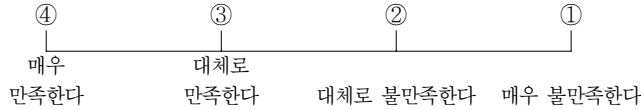
↳ 6-1. 어느 나라에 유학하고자 고려하셨습니까? 국가명: _____

7. 귀하께서 국내 대학원 박사과정을 결정하게 된 가장 주된 이유를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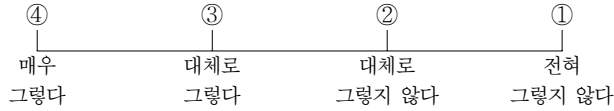
- ① 국내에서도 내가 기대하는 수준의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서
 ② 원하는 외국대학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기가 어려워서
 ③ 내 전공분야는 포스트 닥 과정을 외국에서 밟는 것이 더 유리해서
 ④ 유학비용이 부담되어서
 ⑤ 개인사정(가족, 직장 등) 때문에
 ⑥ 기타 _____

II. 다음은 귀하의 대학원 박사과정 교육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입니다.

8. 귀하께서는 박사과정에서의 생활(수업, 실험·실습, 각종 연구 활동, 대인관계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로 만족하십니까?



9. 귀하께서는 박사과정 진학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박사과정 진학이 잘 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 대학원 박사과정 교육에 대한 다음의 세부 항목에 대하여 귀하께서 만족하시는 정도를 해당 번호에 ✓표하여 주십시오.

	매우 만족한다	대체로 만족한다	대체로 불만족한다	매우 불만족한다
10-1. 전공 교과목 구성과 시수	4	3	2	1
10-2. 실험·실습의 양과 내용	4	3	2	1
10-3. 교육과정 내용	4	3	2	1
10-4. 교수님 강의	4	3	2	1
10-5. 교수님의 연구나 논문 지도	4	3	2	1
10-6. 연구실, 실험실습기기 등 교육 및 연구시설	4	3	2	1
10-7. 장학금 등 경제적 지원	4	3	2	1
10-8. RA나 TA 기회	4	3	2	1
10-9. 졸업후 취업이나 진학 관련 진로정보 및 상담제공	4	3	2	1

11. 귀하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대학원 박사과정 교육의 발전을 위해 개선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점에 대하여 적어 주십시오.

12. 귀하께서는 2006년도 1학기에 장학금을 받으셨습니까?

- ① 받지 않았다
- ② 받았다

↳ 12-1. 어떤 종류의 장학금을 받으셨습니까?

- ___ ① 교내 장학금(수업료 또는 기성회비 면제 포함)
 ___ ② 교외 장학금
 ↳ 장학금 수여 기관명: _____

12-2. 2006년도 1학기에 귀하께서 실질적으로 수령한 장학금의 액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_____만원

13. 귀하께서 등록금과 생활비 등 대학원 박사과정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순서대로 두 가지만 보기에서 골라 주십시오.

제1순위 _____, 제 2순위 _____

【 보기 】	
① 가족(부모, 형제 또는 배우자 등)의 지원	② 장학금
③ RA 또는 TA를 통해	④ 은행 대출
⑤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통해서	⑥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의 지원
⑦ 이전에 모아둔 저축으로	⑧ 기타 _____

14. 귀하께서는 현재 지도교수(또는 소속대학의 교수)의 연구 프로젝트(외부 기관의 연구비 지원 하에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 ___ ① 참여하고 있다 ☞ 15번 문항으로
 ___ ② 참여기회는 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___ ③ 참여하고 싶으나 참여 기회가 없다] ☞ 20번 문항으로

15. 귀하께서는 현재 몇 개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_____ 개

16. 귀하께서 보통 한 개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월 평균 어느 정도의 수당을 받고 계십니까? _____만원

17. 귀하께서는 이들 연구 프로젝트에 주로 어떠한 자격으로 참여하고 계십니까?

- ___ ① 공동연구원 ___ ② 연구보조원 ___ ③ 기타 _____

18. 귀하께서는 BK 사업의 지원을 받고 계십니까?

- ___ ① 그렇다 ___ ② 그렇지 않다

23.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대학원 발전을 위하여 외국인 학생들에게 국내에서 유학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한 편이다
- ③ 필요하지 않다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⑤ 잘 모르겠다

III. 다음은 박사학위 취득이후의 진로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24. 귀하께서는 박사학위 취득 직후의 진로에 대한 계획을 명확하게 갖고 계십니까?

- ①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을 갖고 있다
 - ② 구체적이지는 않으나 비교적 명확한 계획을 갖고 있다
 - ③ 좀 막연하지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은 갖고 있다
 - ④ 아직 무엇을 할 지 전혀 결정하지 못하였다
- } 25번 문항으로
} 33번 문항으로

25. 귀하의 박사학위 취득 직후의 진로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 ① 취업활동을 하고자 한다 26번 문항으로
- ② 포스트 닥 과정을 하고자 한다 30번 문항으로

26. 귀하께서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에 어떤 직업을 가지려고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단, 현재 직장을 유지하려고 하시는 분께서는 지금의 직장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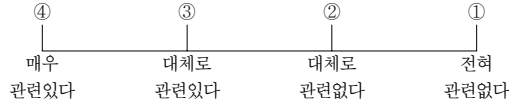
26-1. 귀하께서 주로 하고자 하는 업무를 한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귀하의 시간을 70%이상 할애하고 싶은 업무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① 교육 ② 연구개발
- ③ 컨설팅 및 자문 ④ 행정활동
- ⑤ 기타_____

26-2. 귀하께서 취업을 희망 기관의 유형을 다음 중 한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4년제 대학 ② 2년제 대학 ③ 초중등학교
- ④ 정부출연(산하) 연구소 ⑤ 지자체출연(산하) 연구소
- ⑥ 대학 연구소 ⑦ 민간기업체 연구소
- ⑧ 국내 대기업 ⑨ 국내 중소기업
- ⑩ 외국계 기업 ⑪ 중앙 또는 지방 행정부서
- ⑫ 개인사업(창업) ⑬ 기타_____

27. 귀하께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에 희망하시는 직업 또는 업무를 귀하의 현재 전공과 어느 정도로 관련이 있습니까?



28. 귀하께서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취업하여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고자 하십니까?

(세금포함) 연봉 약 _____ 만원

29. 귀하께서는 박사학위 취득이후 외국에서 취업할 계획이 있습니까?

- ___ ①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
___ ②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가능하면 해외에서 취업하고 싶다 } 29-1번 문항으로
___ ③ 전혀 없다 29-30번 문항으로

29-1. 어느 국가로 가서 취업하고 싶습니까? 국가명: _____

29-2. 해외에 취업하고자 하는 가장 주된 이유를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___ ① 일자리가 많아서
___ ② 임금수준이 높기 때문에
___ ③ 근무여건(연구 환경 등)이 좋아서
___ ④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되어서
___ ⑤ 자녀들 교육 때문에
___ ⑥ 앞으로 외국에 정착하고자 하기 때문에
___ ⑦ 기타 _____

30. 귀하께서는 향후 포스트 닥 과정을 밟으실 계획이 있습니까?

- ___ ① 있다 30-31번 문항으로 ___ ② 없다 30-32번 문항으로

31. 귀하께서는 포스트 닥 과정을 어디에서 밟고 싶습니까?

- ___ ① 박사학위과정과 동일한 국내 대학원
___ ② 박사학위과정과는 다른 국내 대학원 혹은 기관 } 31-32번 문항으로
___ ③ 외국의 기관(대학, 연구소, 기업체 등) 31-33번 문항으로

31-1. 어느 국가에서 포스트 닥 과정을 밟고 싶습니까? 국가명: _____

31-2. 외국에 포스트 닥 과정을 밟고자 하시는 가장 주된 이유를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제 1 순위 _____ , 제 2순위 _____

- ① 내가 참여하기를 원하는 프로젝트가 외국 기관에 있기 때문에
- ② 지도 받고 싶은 교수(연구자)가 외국에 있어서
- ③ 교육과 연구 등 연수 환경이 더 좋아서
- ④ 내 전공분야는 향후 취업이나 승진시 외국에서의 포스트 닥이 유리해서
- ⑤ 외국 포스트 닥 보수가 국내보다 높기 때문에
- ⑥ 앞으로 외국에 정착하고자 해서
- ⑦ 기타 _____

31-3. 귀하께서는 포스트 닥 종료이후 그 나라에서 계속 취업할 계획이 있습니까?

- ___ ① 그렇다
- ___ ② 그 나라는 아니지만 다른 외국에서 취업하고자 한다] ☞ 31-4번 문항으로
- ___ ③ 우리 나라로 귀국하여 취업할 것이다 ☞ 32번 문항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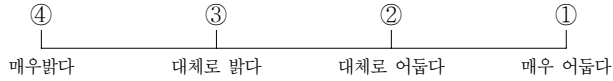
31-4. 해외에 취업하고자 하는 가장 주된 이유를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___ ① 일자리가 많아서
- ___ ② 임금수준이 높기 때문에
- ___ ③ 근무여건(연구 환경 등)이 좋아서
- ___ ④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되어서
- ___ ⑤ 자녀들 교육 때문에
- ___ ⑥ 앞으로 외국에 정착하고자 하기 때문에
- ___ ⑦ 기타 _____

32. 귀하께서는 귀하의 전공분야의 박사학위자가 학위 취득 이후 3년 이내에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해당번호에 ✓표하여 주십시오.

	매 우 높 다	높 은 편 이다	낮 은 편 이다	매 우 낮 다
32-1 국내 대학 교수 취업	4	3	2	1
32-2 국내 전체 취업처	4	3	2	1
32-3 외국(글로벌마켓) 대학 교수 취업	4	3	2	1
32-4 외국(글로벌마켓) 전체 취업처	4	3	2	1

33. 전공 분야의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귀하의 전공분야는 5년 후(2011년 경) 학부 졸업생의 취업전망이 어떠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다음은 통계분석을 위한 일반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성별 : ___① 남자 ___② 여자
2. 출생년도: 19___년
3. 거주지: ___① 서울경가인천 ___② 충청강원 ___③ 영남 ___④ 호남제주
4. 귀하께서 학사학위와 석사학위를 취득하신 대학의 유형을 보기에서 골라주십시오.
 4-1. 학사학위: _____ , 4-2. 석사학위: _____

【 보기 】

① 수도권 국공립대학 ② 수도권 사립대학 ③ 비수도권 국공립대학
 ④ 비수도권 사립대학 ⑤ 외국대학 ⑥ 기타_____

5. 석사학위 취득년도: _____년 _____월, 박사과정 입학년도: _____년 _____월
6. 귀하의 전공분야를 아래의 보기에서 선택하여 주십시오.
 6-1. 학부전공: _____ , 6-2. 석사전공: _____ , 6-3. 박사전공: _____

전공분야 [보기]

1) 국어·국문학	2) 일본어·문학	3) 중국어·문학	4) 영어·문학
5) 유럽어·문학	6) 심리학	7) 역사·철학	8) 경영학
9) 경제학	10) 법학	11) 사회학	12) 행정학
13) 교육학	14) 건축·설비공학	15) 토목공학	16) 기계공학
17) 전기공학	18) 전자공학	19) 전산학·컴퓨터공학	20) 정보·통신공학
21) 화학공학	22) 생명과학(생물학, 생명공학)		23) 화학
24) 환경학	25) 수학	26) 물리·과학	27) 의학
28) 약학	29) 디자인학	30) 기타(_____)	

- 6-4. 박사과정의 세부전공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고체물리, 인지심리).
 세부전공: _____

7. 결혼 여부: __① 결혼 __② 미혼 __③ 기타_____
8. 자녀수: __① 없음 __② 5세이하 자녀 __③ 6-18세 자녀 __④ 19세 이상 자녀
9. 현재 귀하의 취업상황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__① 풀타임 정규직 __② 풀타임 비정규직 __③ 파트타임 __④ 미취업
10. 부모의 교육수준
부: __① 중졸 이하 __② 고졸 __③ 전문대졸 __④ 대졸 __⑤ 대학원졸 이상
모: __① 중졸 이하 __② 고졸 __③ 전문대졸 __④ 대졸 __⑤ 대학원졸 이상
11. 귀하의 식사과정 때 졸업평점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__① A+ __② A __③ B+ __④ B __⑤ C+ __⑥ C __⑦ D 이하

※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5). 『교육통계연보』.
- 진미석·김나라(2004). 『미래의 직업세계(2004): 석·박사 학위 취득자 취업 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동선·김나라(2004). 『미래의 직업세계(2004): 석·박사 재학생 조사』.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 저자 약력

- 진미석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김나라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 윤형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미래의 직업세계 인프라 구축: 석·박사 재학생 조사

- | | |
|---------|--|
| · 발행연월일 | 2006년 12월 30일 인쇄
2006년 12월 31일 발행 |
| · 발행인 | 이 원 덕 |
| · 발행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35-949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2동 15-1
홈페이지: http://www.krivet.re.kr
전화: (02)3485-5000, 5100
팩 스: (02)3485-5200 |
| · 인쇄처 | 범신사 (02)503-8737 |
| · 등록일자 | 1998년 6월 11일 |
| · 등록번호 | 제16-1681호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비매품>